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HK+ Research Unit on Family Community, CNU

가족커뮤니티 FAMILY COMMUNITY

FOCUS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포커스
2019 상반기호

변화하는 가족 패러다임

가족커뮤니티
FAMILY COMMUNITY

FOCUS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포커스
2019 상반기호

변화하는 가족 패러다임

CONTENTS

<아젠다 기획>

초개인화 시대, 신뢰와 공서의 의미체로서 가족(류도향)	04
조선시대 '家族'의 등장과 성리학(박미선)	09
19세기 서울, 욕망과 가족의 문제(한의승)	16

<통계동향>

<가족커뮤니티 그래픽스> 가족구성과 결혼의식의 변화	23
<가족통계동향> 우리가 알던 '가족'은 사라질까?(오영은, 추주희)	24

<정책보고서 리뷰>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성 제고방안	37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정책 10년 평가와 과제	40

*「가족커뮤니티 포커스」는 가족커뮤니티 국가전략 수립에 기여하고자 국내외의 인문기반 다학문·융복합 가족 연구를 소개하고, 관련 사회 정책 동향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 포커스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인문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발행인 정미라

발행처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주소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2호관
전화 062-530-3234 팩스 062-530-5219

가족커뮤니티
FAMILY COMMUNITY

FOCUS

아젠다 기획

- 초개인화 시대, 신뢰와 공서의 의미체로서 가족(류도향)
- 조선시대 ‘家族’의 등장과 성리학(박미선)
- 19세기 서울, 욕망과 가족의 문제(한의승)

*「아젠다기획」은 기존의 가족 관련 정책, 제도, 담론에 대한 인문학적 진단 함께 ‘가족친화인문사회’의 도약을 위한 인문학적 의제를 발굴하는 기획논문을 소개합니다.

* 이번호의 글은 2018년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의 제1회 국내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의 일부를 요약한 것입니다.

초개인화 시대, 신뢰와 공서의 의미체로서 가족

- 류도향

1. 초개인화 시대와 가족의 변화

“초개인화(hyper-individualization)”는 사회적 규범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개인적으로 행동하는, 다시 말해 고도로 개인화된 경향이 확산되는 현대사회를 설명하게 위해 만들어진 신조어다.¹⁾ 최근 한국사회에서 초개인화 경향이 가장 급진적으로 나타나는 영역은 ‘가족’일 것이다. 결혼과 출산은 기피의 대상이 되고 이혼과 독거노인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7년 한국의 출생률은 1.05명,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은 약 30%에 이른다. 전통적인 가족 관념에 배치되는 이와 같은 통계수치를 보면서 혹자는 국가와 사회의 존망을 논한다. 하지만 공동체가 정말 사라지는 걸까? 가족 해체의 원인은 개인에 있을까? 공동체가 사라질 거라는 막연한 불안감도, 가족 해체를 개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인식프레임도 문제가 있다.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가족이 여타의 사회적 관계들 중 하나로 상대화되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이다. 사회의 여러 기능들이 독립분화되고 사회체계가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에 상응하여 개인은 하나의 정체성으로 고정될 수 없는 복합적 인격을 형성하게 된다. 즉 개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속한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부여받은 역할과 기대를 탈피하여 여러 기능체계(학교, 회사, 소셜 네트워크 등)에서의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분화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고도로(초, 超, hyper) 개인화된다는 것은 반사회화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맺을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의 외연이 넓어지면서 자율성과 적응력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개인이 가족을 통해 획득하던 삶의 자원들을 여타의 사회적 관계들에서 획득하게 됨으로써, 가족과 같은 자연발생적 집단이 절대적 우위를 점할 이유가 상실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공동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루만(Niklass Luhmann)은 “고도로 추진된 개체화”는 “이웃세계에 대한 욕구”²⁾를 동반한다고 말한다. 개인이 자신의 고유한 개체성을 의식하면 할수록 타인으로부터 자기정체성을 확인받기를 원하게 되고, 따라서 “친숙하며 고향과 같고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는”³⁾ 수적으로 제한적이지만 내포적으로 밀도가 높은 인격적 관계를 찾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 입각할 때 초개인화 시대는 개인의 자율성이 증대되는 동시에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친밀관계가 새롭게 형성되는 가능성의 시대로 이해될 수 있다.⁴⁾ 다시 말해 초개인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가족은 혈연으로 이어진 자연발생적 차원의 고향, 즉 1차 본성의 영역을 넘어, 서로의 고유

- 1) Bill McKibben(2017), *Deep Economy: The Wealth of Communities and the Durable Future*, Henry Holt & Company Inc. 참조. 다른 한편 경제 영역에서는 초개인화(hyper-individualization or Hyper-personalization)가 표면적인 고객 이해를 넘어 사용자가 은연중에 남기는 기록, 행동까지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추적하여 고객이 알지 못하는 것까지 추천하는 서비스를 가리키는 마케팅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초개인화라는 말이 학문적으로 정립된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개인화가 극대화된다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 2) 니클라스 루만, 정성훈·권기돈·조형준 옮김(2009), 『열정으로 서 사랑: 친밀성의 코드화』, 새물결, 33쪽.
- 3) 니클라스 루만, 같은 책, 같은 곳.
- 4) 정성훈(2013), 『도시 인간 인권』, 라움, 33쪽 참조.

성을 인정하면서 삶의 의미를 공유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일상문화적 차원의 고향, 즉 2차 본성의 영역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최근 반려동물로 각광받고 있는 고양이 신드롬은 이런 변화된 가족 욕망의 한 가지 반영물로 해석될 수 있다. 고양이를 키우는 데는 많은 공력과 돈이 필요하고 생활상의 불편이 따른다. 하지만 고양이는 강아지에 비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받지 않으면서, 신체적 접촉 및 일상의 공유를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고 사회적 지위나 조건에 상관없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원초적 인정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에게 단순한 애완묘가 아닌 또 하나의 가족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제 가족을 사회 재생산을 위한 하위기능체계로 보는 관점으로는 가족 변화의 실상을 포착할 수 없다. 개인의 개별성과 성장을 억압하는 가족, 자발적 의지와 무관하게 고정된 역할을 강요하는 가족은 형태상 가족이라고 지칭될지언정 실질적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개인이 점차 가족을 선택의 대상으로 여기는 가운데, 가족은 세상에 단 하나 밖에 없는 사람이 자신의 고유성을 발현하고 존중받으면서 타인과의 현존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창출하고 확인하는 공동된 의미의 장으로 그 개념 범주를 확장해가고 있다.

심지어 1인 가구도 친구, 이혼한 배우자, 반려동물 등 누군가와 관계 속에서 저 공통된 의미의 장을 실행하는 데 지속적으로 책임과 권리를 갖는 한 가족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가족이 해체되고 있다는 진단이 타당하다면, 그것은 혈연, 출산, 입양에 한정된 기존 가족 개념의 해체일 것이다.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자식으로 구성된 단순집합이 아니라, 개개인의 생활조건과 가치관에 따라 사라지고 새롭게 생겨나는 의미체로서 미래에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 가족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

1절에서 서술한 관점으로부터 가족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가 요구된다. 가족은 기본적으로 식량과 거처, 보호와 안전이 충족되는 경제적, 물질적 생활의 중심이다.⁵⁾ 하지만 동시에 가족은 삶에 대한 기대, 가치, 희망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장소이다. 개인은 생계유지와 안정을 향한 물질적, 경제적 욕구(needs)뿐만 아니라,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향한 감성적, 문화적 욕망(desire)을 가지고 가족을 이룬다. 21세기 초개인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족을 사회적 생산과 재생산의 기능에 묶어 두었던 물질 토대와 이데올로기가 급격히 붕괴되는 경향 속에서 가족에 대한 이러한 욕망은 커지고 있다.

가족구성원들은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기를 원하고 가족 관계에서 삶의 질과 관련된 비물질적 재화, 즉 휴식과 여가, 우정과 사랑, 자발적 동참 등을 충족하기를 원한

5) 가족의 어원을 추적해보면 이 점은 자명하다. 서양에서 가족(family)의 어원이 되는 오스카어 파멜(famel)은 '집'을 뜻하는데, 이때 집은 단순히 생활공간이 아니라, 하인, 노예, 부인 등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들과 재산을 포함한다. "Familie, Ehe", in: Joachim Ritter(Hrsg.)(1972), *Historisches Wörterbuch der Philosophie Bd. 2*, Schwabe&Co-Verlag Basel/Stuttgart, 895-899쪽 참조. 동양의 가(家) 역시 '집'을 뜻하는 말로, 경·대부에게 속한 통치 영역이 되는 재산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말로 사용되었다. 동서양의 어원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오랫동안 가족은 생산과 소비라는 경제적 단위로 구성된 영역으로 간주되었다.

6) 율리히 벡, 정일준 옮김(2000), 『적이 사라진 민주주의』, 새물결, 33쪽 이하 참조.

다.⁶⁾ 나아가 자아의 확장 및 발견, 자아실현, 자존감, 성장과 같은 개별성의 요소가 가족을 이루는 데 중요한 원리로 작동한다. 다시 말해 가족구성원들이 생계와 안정을 위한 기초적인 욕구를 넘어 인정과 놀이와 같은 좀 더 고차원적인 욕망을 달성하고 싶어하는 것이다.⁷⁾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날 가족이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가족적인 것이라는 용어로 어떤 소통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여기서 의미는 외부 세계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의미나 상징의 체계, 즉 탈물질화된 가족관념이 아니라, 역사적,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편성된 의미, 즉 구체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의미부여되고 실천적으로 성취되는 구성물로 이해되어야 한다.

전통 가족으로부터 현대 가족에 이르기까지 가족 변화를 추동하고 있는 충동과 욕망, 표상과 인식틀의 구조적 변화는 무엇일까? 가족 혹은 가족적인 것을 명명하고 이해하는 용어와 개념은 어떻게 의미부여되었을까? 더 나아가 가치론적으로 유의미한 가족 의미론을 발굴·상상하여 구체적인 현실 맥락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고 확산시킬 것인가? 이런 물음들은 기존 사회과학적 가족연구를 바탕으로 인문학에서 새롭게 던져질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한국가족의 미래를 그려가는 데 중요한 소통매체가 될 수 있는 신뢰와 공서의 의미론을 대략적으로나마 스케치해보고자 한다.

3. 혈연 가족과 신뢰의 의미론

서양의 근대 가족은 친밀성(intimacy)의 의미론을 통해 뒷받침되었다. 친밀함은 근대 이전까지 없었던 인간 대 인간의 순수한 관계를 특징짓는 말, 즉 ① 인간과 인간이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만나고, ② 서로를 전인격체로 존중하고 신뢰하면서, ③ 서로의 성장과 도야를 이끌어내는 근대적 '인본성(humanity)'의 이념을 함축하는 질적으로 새로운 인간관계를 지시하는 의미로 개념화되었다.

한국 근대가족의 성립은 서양의 친밀성 개념으로 해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서구처럼 공사(公私)의 이분법이 엄격하게 통용되지 않고, 서구적 개인의 탄생만큼 인격적 개별성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한국사회에서 저 친밀성 코드는 제도로서 가족 관계보다 우위를 점하는 중심 의미론으로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한국가족은 공사의 이분법 이전에 작동하는 사회구성의 원리이며 개인의 복합적 정체성의 자원이 되었다. 더군다나 교육, 복지, 부양 등 국가가 담당해야 할 공적 역할마저 가족에게 떠넘긴 한국사회의 특수한 근대화 과정에서 가족이데올로기가 강고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 근대 가족의 의미론은 사랑보다는 신뢰와 선택적 친화성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사랑이 개별 인격체들이 자신의 고유한 세계를 인정받고 실현하는 데 중점이 있다면, 신뢰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서로를 보호하고 의지하면서 변치 않는다는 믿음을 갖는 관계라는 데 본질이 있다. 이러한 신뢰의 의미론이 혈연/비혈연의 코드 속에서 일반적인 소통매체로 자리매김되고 한국에서 가족적인 것의 이해와 소통을 뒷받

7) 노스웨스턴 대학의 심리학자 엘리 핑겔은 최근 결혼의 목적이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1620년에서 1850년까지의 결혼의 주요 기능은 식량, 피난처 및 폭력으로부터의 보호였고, 1850년에서 1965년까지의 목적은 사랑과 교우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오늘날에는 자기 발견, 자부심, 개인적 성장을 지향하는 결혼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Eli Finkel(2017), *The All-or-Nothing Marriage: How the Best Marriages Work*, Dutton.

침하게 된다.

혈연가족은 정상가족을 가정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차별과 편견을 낳는다. 전지구적이고 다원화된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전통적인 가족공동체를 더 이상 고집할 수 없다. 하지만 서구와 같은 개인주의를 경험하지 않은 한국사회에서 개인주의를 마냥 옹호하는 것 또한 폐단이 있다. 혈연 가족을 지지하는 신뢰의 의미론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계기를 현재적으로 재구성하여 계승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혈연 가족은 의식적 관계 이전에 몸과 유기체적 조건에 기반해서 상호연결된 ‘신체적 공생’의 의미를 함유한다. 혈연은 친구나 친한 선후배 사이를 뜻하는 인간관계인 지연과는 달리 핏줄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연발생적이고 일차적인 관계로 간주된다. 물론 혈연이 개개인의 욕망 또는 그 밖의 사회적 관계에 대해 배타적 우위를 주장할 때 폭력의 기제가 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탄생과 병고, 죽음 등 생애를 함께 하는 혈연 가족은 일상생활에서 서로 구별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의 무매개적 직접성을 살의 차원에서 느끼고 체험한다는 사실을 간단히 무시할 수 없다. 살과 살의 내밀한 접촉은 단순히 육체들 간의 맞닿음이 아니라, 다양하게 기능분화된 사회의 코드화된 소통이 실패하는 지점에서 인간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다.

둘째, 혈연 가족은 나와 너의 손실을 합리적으로 계산하지 않는 ‘이타적 공유’의 의미를 전제한다. 내 자식, 내 식구만을 챙기는 가족이기주의는 건강한 시민문화의 형성을 가로막는 심각한 폐단이지만, 혈연 가족에는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 선물경제, 이익과 손해에 있어 공동의 몫을 상정하는 나눔의 마음이 깃들어 있다. 나아가 한국의 미풍양속에서 접빈객, 두레, 품앗이 등 낮은 손님, 이웃, 다른 가족과 연대하는 이타적 혈연공동체 문화는 현대적 맥락에 맞게 새롭게 재해석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혈연 가족은 나라는 존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이야기하는 ‘역사적 서사’의 자연사적 바탕을 이룬다. 다시 말해 나의 개별 선택과 행위가 온전히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대한 자연사적 흐름 속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때 개인 삶의 의미 및 목표와 자유를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의 뿌리를 기억하고 내가 왜 지금 이곳에 있는지를 성찰하며 앞으로 살아갈 이유를 탐색할 수 있는 혈연 가족의 서사적 기제는 현대인에게 여전히 유의미한 삶의 자원일 것이다.

4. 열린 가족과 공서의 의미론

가족은 단순히 생물학적, 자연적으로 선결정된 어떤 실체로 규정되지 않는다. 가족은 정신과 신체, 이성과 감정, 자기와 타자, 자율성과 인정, 개인과 사회, 문화와 자연의 끝없는 긴장과 갈등 속에 놓인 사이존재, 즉 인간(人間)들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어 온 의미론적 구성물로 새롭게 이해될 수 있다. 가족은 가장 내밀한 감정과 정서를 교류

한다는 점에서 지극히 사적이지만, 사회적 인간관계의 기본을 배우고 연습한다는 점에서 다분히 공적이다. 가족은 생명 유지를 위한 재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자연적 장소이면서, 동시에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실현해가는 구성적 장소이기도 하다. 또한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의 자율성을 존중받기를 원하면서도 상호인정을 바란다. 달리 말해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경계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들이 나누는 사랑과 우애는 순간적으로 그 경계를 모호하고 유동적으로 만든다. 나아가 4차산업 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사람, 사물, 로봇 간의 새로운 유대관계를 가능케 할 것이다. 앞으로 신뢰의 의미론은 혈연 가족의 폐쇄성과 위계성을 넘어, 이처럼 다양한 모순들 속에서 소통의 수행들을 실험하고 편성하는 열린 가족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열린 가족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아직 구상의 수준에 머무르지만 정신과 신체, 이성과 감성, 자기와 타자, 자율성과 인정, 개인과 사회, 문화와 자연 사이에 긴장과 갈등을 보존하고, 나아가 차이와 모순을 동일화시키는 자본주의 사회의 부정적 총체성에 저항하면서 진정한 새로움을 형성하는 ‘횡단적-짜임관계적 실천’을 목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동물들이 한곳에서 같이 산다는 뜻을 지닌 ‘공서(共棲)’는 초개인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혈연가족의 폐쇄성과 위계성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의미론으로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혈연 가족이 핏줄, 가족일대기, 가족주의의 집단적 욕망과 같은 동일성의 의미론에 기초했다면, 열린 가족은 식물, 동물, 서로 다른 욕망을 지닌 개체들, 이민자, 로봇 등 서로 이질적인 존재들이 함께 살아가는 비동일성(차이)의 의미론, 즉 공서(共棲)의 의미론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루만, 니클라스, 정성훈 · 권기돈 · 조형준 옮김(2009), 『열정으로서 사랑: 친밀성의 코드화』, 새물결.
 벡, 울리히, 정일준 옮김(2000), 『적이 사라진 민주주의』, 새물결.
 정성훈(2013), 『도시 인간 인권』, 라움.
 Finkel, Eli(2017), *The All-or-Nothing Marriage: How the Best Marriages Work*, Dutton.
 Ritter, Joachim(Hrsg.)(1972), *Historisches Wörterbuch der Philosophie Bd. 2*, Schwabe&Co · Verlag · Basel/Stuttgart.
 McKibben, Bill(2017), *Deep Economy: The Wealth of Communities and the Durable Future*, Henry Holt & Company Inc.

조선시대 ‘家族’의 등장과 성리학

- 박미선

1. 머리말

‘家族’이라는 한자어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부부와 그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전근대’ 시기에도 ‘가족’이라는 단어가 지금과 동일한 의미로 통용되었을까 하는 물음에서 본 연구는 출발하였다. 즉, 이제까지 연구에 있어서 현재 ‘가족’이라고 호명되는 집단이 과거에도 그와 같이 불렸는지에 대한 별다른 생각 없이 으레 ‘가족’으로 전제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역사상 ‘家(族)’ 개념의 기원과 형성, 그리고 그 변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가족에 대한 개념의 역사를 다루기 위해서는 우선, 동양의 한자문화와 정치사회에 존재했던 이러한 용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지금은 ‘가족’으로 호명되는 이 최소의 사회관계를 ‘家族’이라는 한자어로 표현하기 시작한 것이 언제이며, 그 출현을 전후한 시기에 가족과 관련된 어휘들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근대 이후 서구나 일본의 가족 개념을 수용하면서 기존의 여러 개념 중 ‘가족’이 선택되고, 이후 그 의미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 가운데 세 번째 작업 즉, 근대 이후 가족의 개념사적인 문제는 추후 별도로 검토하려고 하며, 여기에서는 家族이라는 한자어 개념이 우리 역사상 어떠한 과정에서 출현하였는지에 대한 논의로 한정하려고 한다. 이렇게 검토 범위를 한정하려는 까닭은 본 논문에서 특히 주목하는 문제가 조선사회에서 사용되던 여러 ‘가족’ 관련 어휘 중 家族이라는 한자어가 최종적으로 의미 있게 인식되었던 역사적 맥락을 조선사회에서부터 파악하고, 이를 통해 조선사회에서 ‘家族’이 차지하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우선 家族의 기원을 찾아보고, 우리 역사상 가와 족에서 파생된 가족 관련 어휘를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가족’이라는 용어의 출현이 조선시대로 짐작되는 바, 그렇다면 그 이전까지는 ‘혈연상 최소 관계’인 ‘가족’을 어떻게 표현하였는지 파악하기 위함이다. 다만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편찬하는 과정에서 사관들에게 엄정하고 객관적 자세가 요구되었고 전 시기를 서술하고 있는 만큼, 통합적 측면에서 ‘家(族)’ 어휘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용이할 것으로 생각하여 연대기 기록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삼국사기』와 『고려사』의 기록 중에는 정확한 날짜를 파악할 수 없는 열전의 기록이 있으므로 시기별로 나누지 않고, 서명별로 어휘의 기록물을 제시하였다.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은 조선의 가족제도 변화의 시점을 기준으로 15세기, 16

세기, 17세기 이후로 구분하였다. 이를 통해 각 어휘의 시대별 사용 경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家族’이라는 한자어가 출현한 시기를 비정하고, 그 등장의 의미를 주자성리학의 심화 과정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의 작업 과정에서 가족이라는 한자어의 출현은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문헌에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러한 한자어가 어떠한 학문적 경향 속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는가 하는 점을 밝히고, ‘家族’에 대한 인식의 연관성을 발견해 낸다면, 어휘의 출현 시점과 배경, 당시의 ‘가족’이라는 용어 사용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2. ‘家族’의 기원

가족(家族)이라는 한자어는 중국의 『관자(管子)』 「소광(小匡)」 편에서 최초로 등장한다. 『관자』는 공자가 태어나기 전, 춘추시대에 제나라 환공(桓公)을 모신, ‘관포지교(管鮑之交)’의 고사로 더 유명한 재상 관중(管仲)과 그 계열에 속하는 학자들의 언행록으로, 한나라의 유향(劉向)이 그때까지 전하던 기록을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 나타나는 ‘가족’이라는 한자어는 오늘날 ‘가족’과는 사뭇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공은 公族을 다스리시고, 家は 家族을 다스려서, 서로 국사로 이어지게 하고 서로 녹봉으로 함께 하면 사람이 서로 친해질 것입니다.”¹⁾

위의 기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국 고대 국가의 봉건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은나라 후기부터 가(家)는 중국인의 실질적인 생활공간에서 정치사회의 핵심단위로 등장했고, 귀족들의 가(家)는 상당한 규모를 가진 거대집단으로 성장하여 사회조직의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 이후 주나라 초엽 주공(周公)이 봉건(封建)과 종법(宗法)을 기초로 사회 조직을 재구성할 때, 천자에 의해 봉해진 제후(諸侯)의 강역은 국(國)으로, 제후에 의해 봉해진 대부의 통치영역은 가(家)로 개념화하게 되었다. 주공(周公)은 은나라를 무너뜨리는 혁명에 성공한 후 천하를 71개 국(國)으로 나누어, 천하를 소유한 천자(天子) 아래 제후들이 국을 다스리고, 제후 밑의 경이나 대부가 가(家)를 다스리는 봉건제도를 채택함으로써, 본래 혈족집단이었던 가(家)는 상당한 규모를 가진 경대부들의 일종의 식읍이 되었다.

봉건제 하에서 가족의 의미를 살펴볼 때, 위 기록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제나라 제후인 환공이 정치를 잘하여 천하의 제후가 되는 방법은 각자의 직분에 맞추어 자신이 통치하는 영역을 잘 다스리는 것이다. 제후인 환공은 공족(公族)을 잘 다스리고, 그 아래 가(家)는 가족(家族)을 다스려서 국사를 수행하고 녹봉을 받는다. 여기에서의 가(家)는 바로 대부(大夫)의 정치행정단위이며, 가족은 그가 통치하는 영역에 속한 식솔 집단을 의미한다. 가족은 ‘가(家)’의 개념이 혈족에서 확장되어 정치적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1) 『管子』 「小匡」 “公修公族，家修家族，使相連以事，相及以祿，則民相親矣。”

3. ‘家(族)’ 관련 용례의 검토

다음으로 우리 역사상 ‘가(족)’의 용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각 시대별 ‘가(족)’ 관련 한자어를 추출하는 기준을 객관적 방법으로 제시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근대에 ‘가족’이라는 한자어가 다른 한자어와 달리 외래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위를 차지한 한자어가 되었던 배경과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 관련 어휘의 변천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이에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에서 ‘가(족)’ 관련 한자어의 빈도수를 조사하였다. 『한어대사전』에서 ‘가’와 ‘족’과 관련된 단어를 뽑고, 『고법전용어사전』에서 다시 관련 어휘를 정리한 후,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조선시대 문집 등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가’와 ‘족’ 관련 어휘를 보완하여, 다시 의미있는 한자어를 선별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삼국사기』에 나타나는 한자어는 가구(家口), 가인(家人), 가실(家室[실가室家]), 가(家[일가一家, 오가ㅍㅁ家, 여가汝家, 외가外家, 세가世家]), 족성(族姓), 족인(族人), 성족(姓族), 씨족(氏族), 종족(宗族), 구족(九族), 골육(骨肉) 등이다. 『삼국사기』에서는 물리적 공간과 혈연적 관계를 드러내는 한자어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골육(骨肉)’이라는 한자어가 김유신 열전, 신라본기와 고구려본기 등에서 쓰였다. 오늘날에는 ‘골육상쟁’과 같이 관용적 표현으로 흔히 사용되곤 하는데, 『삼국사기』에서는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근간인 뼈와 사람의 살을 의미하는 골육이라는 용어를 통해, 부자나 형제 등 지친(至親)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다만 9세기 『삼국사기』 궁예의 출생과 관련하여 ‘외가(外家)’라는 표현이 새롭게 등장하여, 친족관계에 있어 출계를 가리키는 용어가 고려 건국 이전부터 나타나고 있다.

둘째, 『고려사』에서는 『삼국사기』와 비교해 볼 때, ‘가’ 계열의 용어는 가족(家屬), 가소(家小), 가호(家戶), 가문(家門) 등의 용어가 추가되었고, ‘족’ 계열의 한자어는 족당(族黨), 족속(族屬), 족친(族親) 등의 용어가 추가되었다. 또한 가(家)나 족(族) 계열의 용어에 있어서 출계가 드러나는 어휘가 등장한다. 즉, 가는 아가(我家) 이외에 본가(本家), 처가(妻家) 등이 나타나 자신의 집안과 아내의 집안을 구별하고 있으며, 족은 친족(親族), 본족(本族), 외족(外族), 처족(妻族) 등이 등장한다. 이렇게 출계를 구분하는 어휘들이 출연하였지만, 친속을 구분하여 가계의 계승이 한쪽으로만 편중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시대 주목되는 용어가 바로 족당(族黨)이다. 중국에서는 주로 부계적인 친족집단을 의미하였지만, 고려에서는 내외 친속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되었다. 즉, 본족과 함께 외족이나 인족(姻族)들에게도 구분 없이 사용되었다. 이는 양측적 친속관계가 정치적 영역에서 작동하며 나타난 용어이다.

셋째, 『조선왕조실록』에서는 가정(家庭), 가정(家政), 가계(家系), 가족(家族), 종가(宗家) 등의 한자어가 추가로 사용되고 있다. 가계(家系)는 16세기 한번 사용되고, 종가(宗家)는 조선 초 가족제도의 원리로 설명된 후, 17세기 이후에는 문중의 큰집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가정(家政)은 집안 생활을 처리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쓰이고 있다. 조선시

대 새롭게 등장하는 어휘 가운데 '가정'과 '가족'이라는 한자어가 특히 주목된다. 우선, 가정이라는 한자어는 '집안의 뜰'이라는 단순한 장소가 아닌, 부모나 자녀를 포함한 집단으로서 교육이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물리적 생활공간으로 조선 초부터 사용되기 시작한다. 또한 '가족'은 개인의 신념의 대상이자, 개인으로 인한 연좌 곧 공동 책임의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가족'이라는 한자어의 용례는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을 통틀어서 그 빈도수가 불과 4건 정도 밖에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용어보다 늦은 18세기 후반 등장하였다.

4. 성리학의 심화와 '家族'의 부상

『조선왕조실록』에서 가족이라는 한자어는 18세기 후반 등장하였지만, 문집에서는 이보다 앞서 17세기부터 확인된다. 그렇다면 17세기 이후 조선의 유학자들은 가족이라는 한자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을까? 1666년(현종 7) 송시열의 다음 답서를 통해 그 실마리를 풀어 나갈 수 있다.

B-1) 萬一有誤事失圖之端, 則所謂家族不足惜, 奈國家何者, 實足寒心.

만에 하나라도 잘못된 일과 잘못된 생각의 단서가 있다면, 이른바 '가족'은 애석해 할 것이 없지만, 국가는 어찌한단 말입니까?라고 할 수 있으니, 실로 한심합니다.²⁾

-2) 家族止家何 ①朱子諷南軒語.

'가족'부터 '가하'까지는 주자가 남헌에게 고한 말이다.³⁾

B-1)은 송시열이 이상(李翔)에게 답한 편지이며, B-2)는 B-1)의 내용에 대해서 송시열의 후손 송근수가 주를 달아 출처를 밝힌 것이다. '가족'이라는 한자어가 들어간 이 문장을 주자의 말에서 인용하고 있다는 것은 '가족'이라는 어휘가 조선에서 사용된 맥락을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 주자가 남헌에게 이 문장을 쓴 출처를 확인해 보면, 주희의 문집 『주자대전』(『회암집』)에서 확인된다. 주희가 장경부(張敬夫)에게 보낸 답서에는 '가족은 애석해 할 것이 없지만, 종사(宗社)는 어찌한단 말입니까?(家族不足惜 奈宗社何此)'라는 내용이 있다. 이로 볼 때, 송시열, 송근수가 출처로 밝히고 있는 문장은 주희가 장식에게 보내는 답서에서 연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송시열은 '주자의 일점 일획도 고칠 수 없다'는 확고부동한 주자 존송론자였다. 송시열이 '가족'이라는 어휘를 사용한 것은 주자의 이 용례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송시열이 가족이라는 한자어를 사용하게 된 맥락을 통해 볼 때, 주자의 글과 말에 새롭게 사용된 어휘와 문투가 조선 유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주자대전』이 조선에서 수용되고 확산되는 과정은 곧 가족 어휘의 사용을 이해하는데 단초가 된다. 『주자대전』은 1543년(중종 38) 조선에서 처음으로 간행되었다.⁴⁾ 이후 조

2) 『宋子大全』 권46 「答李雲舉」.
3) 『宋子大全隨劄』 권5 「卷之四十六書」.
4) 『朱子書節要』 「序」 「此書之行於東, 絕無而僅有, 故士之得見者蓋寡. 癸卯中我中宗大王命書館印出頒行.」

선에서는 주자대전의 편집서, 주석서, 해석서 등이 간행되면서 성리학의 심화 발전에 기여하였는데, 특히 이황의 『주자서절요』는 성리학 입문서로 활용되었다. 이황의 『주자서절요』를 바탕으로 『주자대전』 주석서, 해석서를 편찬한 성리학자나 성리학 대가들의 문집에서 가족이라는 한자어가 포착되는 만큼, 성리학자들에게서 가족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가족이라는 용례가 사용된 ‘장식에게 쓴 주희의 답장[答張敬夫書]’은 어떠한 내용이었기에 조선사회에서 의미 있게 파악되었던 것일까? 주자의 편지에 드러난 남송과 금나라의 관계는 조선과 청나라의 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었다. 효종은 청나라에 복수하고,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자 북벌론을 추진하였다. 또한 왜란과 호란 등 전쟁으로 인해 붕괴된 조선의 공동체 질서를 재건하고자 하였다. ‘장식에게 쓴 주희의 답장[答張敬夫書]’은 이러한 조선의 시사(時事)를 은미할 수 있는 편지였다. 『주자서절요』가 성리학의 핵심 교재로 활용되고, 이와 같은 사회현실적 요건이 마련되면서, 조선의 성리학자들에게 이 편지는 더욱 의미있게 다가왔을 것이며, 편지에 나온 ‘가족은 애석해 할 것이 없지만, 종사(宗社)는 어찌한단 말입니까?(家族不足惜 奈宗社何此)’라는 구절이 익숙해졌을 것이다.

이상의 조선시대 가족이라는 용어는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용례의 의미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첫째, 가장과 그 가장에게 종속된 구성원으로서 공동성과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최초로 확인되는 ‘가족’은 본래 혈족 집단에서 경대부의 식읍과 같은 정치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이러한 ‘가족’의 의미가 고대만큼은 아니지만, 조선시대에도 내포되어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조선시대 문집에서는 가장과 여기에 종속된 구성원을 하나의 집단적 단위로서 묶어 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전쟁 중에 피난을 떠날 때, 환난을 당할 때 가족은 가장의 책임 하에 함께 보호되어 생존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 또한 가족은 가장의 죄에 연좌되어 공동의 책임을 져야 했다.

둘째, 공공의 유대성 속에서 사적(私的) 성격을 지닌 집단의 의미를 지닌다. 주희가 편지에 썼던 용례는 ‘가족은 애석해 할 것이 없지만, 종사(宗社)는 어찌한단 말입니까?(家族不足惜 奈宗社何此)’였는데, ‘종사’는 곧 종묘와 사직으로 국(國)을 의미한다.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이 종사를 대신하여 사용한 ‘국가’, ‘천하국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주희나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은 이 문장에서 가족과 국가(종사, 천하국가)를 상대되게 배치하였는데, 이 때 국가(國家)는 이미 선진 시기 유가, 법가, 도가의 정치사상에서 의미가 부여된 공가(公家)로서, 공사 관념이 기저에 반영된 것이었다. 사가(私家)인 가족의 존속보다는 사가의 집적인 종사, 국가, 천하국가 등 공가(公家)의 보존과 유지가 공동의 책임으로 중요시 된 것이었다.

셋째, 종법 체제의 부활이라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가족의 의미가 확인된다. 종법의 구현 공간으로서 사당과 여기에서의 축문이 송준길의 사례에서 확인된다. 송준길은 조상의 음덕으로 효종, 현종 두 명의 군주를 만났고, 참소로 벼슬에서 물러나와 고향에 있는데도, 현종이 안부를 묻는 것은 모두 조상의 음덕에 의한 것이라고 하고, 조상들에게 가

족 모두를 보우해 주기를 고하였다. 아울러 그는 같은 내용의 축문을 증조할아버지와 증조할머니 사당에도 사용하였다. 이로 볼 때, 송준길은 3대조와 3대조모의 사당 및 가묘에 고할 수 있고, 그 사당에 모셔져 있는 조상의 음덕을 받는 범주를 가족이라고 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5. 맺음말

‘가족’이라는 한자어는 우리 역사상 사료를 통해 많이 발견되는 용어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가족’은 근대에 탄생한 용어인가? 꼭 그것도 아니었다. 가족은 ‘가’, ‘족’에서 파생된 한자의 의미를 수용하면서도 주자성리학의 확산으로 아주 서서히 사용되기 시작한 한자어였다.

그 용례를 살펴보면, 이전부터 축적되어 기저에 있어왔던 공동의 유대적 성격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 성격과 사적 단위로서의 의미가 반영되면서도, 주자가 강조하는 제사로 이어지는 부계 중심의 가족질서가 반영된 어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족’이라는 한자어는 성리학을 바탕으로 부계중심의 가족질서가 확산되면서 17세기 경에 새롭게 출현한 용어였다.

이렇게 조선시대에 등장한 ‘가정’과 ‘가족’은 근대 서구의 친밀감과 평등을 강조하는 의미의 ‘family’와 호주를 중심으로 편제된 일본의 ‘家[いへ]’ 개념을 수용하고, 부계질서를 조선의 관습으로 강조하는 통감부 및 조선총독부 하에서 복합적 의미가 반영되어 또 다시 의미 변화를 맞게 되었던 것이며, 오늘날 ‘가족’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조선시대 출현한 ‘가족’이라는 한자어가 이후 ‘가(족)’ 관련 어휘 중 보편적으로 사용된 시기와 그 계기는 추후 별도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徐楊杰 著, 윤재석 옮김(2000), 『중국가족제도사』, 아카넷.
 이경구(2012), 「조선후기 ‘주자주의’의 동향과 이용후생 개념의 부상」, 『개념과 소통』 10호, 69-103면.
 이상하(2012),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가 조선조에 끼친 영향」, 『퇴계학보』 132, 5-38면.
 이향준(2012), 「한국 성리학의 해석학적 발전- 『주자대전』의 주석서를 중심으로」,
 을곡사상연구 25집, 129-160면.
 장현근(2000), 「가개념의 유래와 사회학」, 『전통과 현대』 가을호, 16-28면.

19세기 서울, 욕망과 가족의 문제

- 한의승

1. 머리말

고전문학사에서는 17세기를 기점으로 가정소설 또는 가문소설이라 불리는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한 일군의 작품들이 출현한다. 대표적인 작품이 <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 <숙향전>, <소현성록> 등이다. 이들 작품군은 기본적으로 표기 문자가 한글로 쓰여진 것이 다수인 관계로 여성독자를 겨냥한 작품으로 규방소설로 불리기도 했다. 여성독자를 중심에 둔 입장에서 서술된 것이기에, 기본적으로 여성 중심주의적 시각이 일정부분 녹아들어 있다. 하지만 여성주의적 시각이 여성 자신의 온전하고 독자적인 자아를 구현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여성을 대상 독자로 상정하고 구현한 작품 내 세계관의 기저에는 여성의 세계관을 조작하려는 남성의 시각이 깔려 있음을 예상하기 때문이다.

전근대 시대의 여성은 기본적으로 약자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전근대 사회의 남성 중심적 구조 속에서 그녀들은 부수적인 존재였다. 물론 허난설헌의 경우와 같이 자아의 성장을 상징하는 존재가 간헐적으로 등장한 바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였다. 몇몇을 제외한 대부분은 중세적 틀에 매몰되어 재생산에 투입되는 운명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녀들은 일생에서 어느 정도 성장하면 결혼이라는 가족 제도의 틀로 편입되는 게 당연한 것으로 강요받았다. 거의 대부분은 가족 제도의 틀 속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전통시대의 남녀는 결혼을 통해 가족을 이루어야 비로소 사회 구성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여성은 종속적 존재로만 표상될 뿐이었다.

그렇다면 여성과 결혼으로 대변되는 가족의 관계를 들여다 볼 필요가 생긴다. 가족이란 틀은 여성에게 있어서 보호와 구속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제도였다. 이러한 가족제도의 변화와 그 영향이 여성에게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궤적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런 차원에서 본고는 <포의교집>을 주목한다. 그동안 작품 분석은 '불륜'이라는 측면에만 집중했을 뿐, 남녀 주인공을 둘러싼 가족의 문제를 전면에서 논의한 경우는 없었다. 그들을 둘러싼 공간과 욕망, 제도의 관계는 주목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 여성 욕망과 가족제도의 이항 대립에 대해서는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본고는 19세기 서울이란 현실적 공간을 중심으로 펼쳐진 인정세대의 양상이 여성의

육망 투쟁과 가족 해체의 문제를 통해 어떻게 현현되고 있는지 주목하는데 목적이 있다. 19세기 서울과 육망, 가족 해체의 양상을 응시해 봄으로써 고소설을 통해 전근대시대 가족을 읽는 시각의 전환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19세기 조선의 가족제도와 여성의 현실

조선의 가족제도는 친족제의 변화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른바 유교적 가부장제 아래 단계적 부계친족제는 17세기 초에 시작되어 17세기 말에 이르면 조선사회에 정착되는 양상을 띤다. 이와 함께 혼인제도 또한 남귀여가혼에서 친영혼의 형태로 변화하고, 재산의 상속 또한 장자상속의 원칙이 확산되었다. 이것은 곧 여성의 지위와 연관된 지점으로 사회적 지위가 17세기 말을 기점으로 남성에게 종속된 처지로 하락하게 됨을 의미한다.

조선후기 가족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가족 해체의 징후와 현상의 대표적 형태라 할 수 있는 간통의 양상과 법적용의 문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간통은 사회 체제의 풍속법적 양상을 위배하는 행위로 인지되어 법으로 강하게 규제되었고,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대명률』을 중심으로 한 법조항에 이에 대한 사안이 정비되었다. 간통과 관련된 『대명률』의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무릇 화간한 경우에는 80대의 장형을 부과하고, 여성에게 남편이 있을 경우에는 90대의 장형을 부과한다. (중략) 간통한 부인은 남편이 가매(嫁賣: 돈을 받고 시집보냄)할 수 있고, 남편이 그대로 머물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들어준다.¹⁾

기본적으로 기혼남녀의 불륜, 즉 간통은 법적 처벌을 강하게 받게 되는 비윤리적 행위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간통에 따른 처벌 조항은 사계층이나 양인을 막론하고 그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개인에게 강력하게 물었다. 기혼자들 사이의 간통일 경우 사계층이든 양인이든 불륜 대상자의 배우자, 특히 남편의 고소가 있게 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점은 조선 초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전일하게 적용된 사안이었다.

그런데 법률의 적용에 있어 남녀 간에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법적용의 양상은 상대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과한 형태로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대 부가의 여성이 동등한 신분이 아닌 하층 신분의 남성과 간통할 경우 법 적용은 강력하게 이뤄졌다. 사대부가 여성의 간통은 즉각적인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다 보니, 오히려 이혼을 중용하기 위해 간통으로 모는 경우 또한 적지 않았다. 문제는 여성에게만 지극히 일방적인 형태로 존재했다는 점이다.

간통은 가족 내 구성원의 불협화음이 직접적이고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된 것이다. 가족 구성의 기초인 부부사이의 불안정성이 남성 중심적 중세 가족주의의 외피를 뚫고 폭

1) 『대명률』, 「형률」, 〈범간〉, 장병인, 전계서, 146쪽 재인용.

발한 불온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대명률』에는 간통남녀의 적발시 살해하는 조건을 ‘현장포착(간통현장에서 남편이 직접 잡은 경우)’, ‘현장살해(간통현장에서 즉시 죽인 경우)’로 명시하여 남편에 의한 사적 징벌의 권한을 허용하였다. 하지만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현장포착’과 ‘현장살해’라는 원칙을 벗어난 경우에도 사적 징벌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기 시작하면서, 간통의 사적 징벌의 양상은 무작위적이거나 마찬가지로 변질되어버렸다.²⁾

작품을 통해 반영된 ‘간통’은 19세기 조선의 가족제도를 둘러싼 사회상의 현실적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핵심은 19세기 조선, 특히 서울의 사회상을 응시하는데 있는 게 아니라 서울의 가족=조선의 가족이 표상하는 전통시대 가족주의와 불륜으로 상징되는 가족주의의 해체적 징후를 응시하는데 있다.

3. 19세기 서울, 낭만적 착각과 현실적 욕망 투쟁의 공간

19세기 중엽 서울의 인구는 30만을 상회³⁾할 정도로 급속한 팽창이 진행되던 도시였다. 각종 물자와 사람이 집중되어 시장을 중심으로 한 상업 자본이 꿈틀거리는 공간이었고, 자본이 집중되자 돈 냄새를 맡고 움직이는 다양한 인간 군상이 발생하는 장소였다. 서울은 이미 욕망을 추구하고 향락을 소비하는 도시로 기능하고 있었다. 그 속에 사는 인간은 서울의 욕망을 표징으로 주제로 존재할 뿐이었다. 19세기 서울의 인정세태를 표상한 <포의교집>은 이러한 서울의 도시문화적 분위기에서 잉태된 측면이 강하다.

작품 속에 묘사된 초옥의 행동을 살펴보면 그녀가 추구하는 ‘知己’찾기의 행동은 기시감이 들게 한다. 그것은 전대 傳奇小說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행동과 흡사하다. 초옥은 바로 그 지기를 찾기 위해 도전과 응전의 모험을 감수한다.

그녀는 신분이 하층민 여성이기에 강렬한 열을 실행해야만 하고 때로는 그것을 위해 목숨을 내던지기도 해야 하는 열부가 될 이유가 없었다. 그녀 본인만 만족하면 평범한 다른 여성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여성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생과의 만남에서 자신의 불쌍한 처지를 하소연한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신의 신분적 굴레로 인해 인생이 비천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그녀는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이때 주목할 점은 바로 초옥의 욕망⁴⁾이다. 그녀의 욕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이상한 지점이 발견된다. 여성이기에 겪는 부당한 사회적 억압에서 배태된 고도로 절제되고 응축된 욕망의 표출이 아니라, 마치 다른 사람의 것을 베낀 것인 양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고 있는 것⁵⁾처럼 보인다.

이점은 작중에서 신분을 고려치 않고 마치 사대부가의 여성인 양 행동을 취하는 것에서 잘 포착된다. 초옥은 자신의 입을 통해 “어려서 아녀자이자 시인인 남녕위대 별가를 모시면서 『통감』, 『사략』, 『시전』, 『효경』, 『고문』 등의 책을 외우고, 『난설헌집』은 오늘날까지 익숙할 정도”라며 자부하는 태도를 보인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망이 좌절당하자

2) 이에 대해서는 장병인, 『법과 풍속으로 본 조선 여성의 삶』, 휴머니스트, 2018 참조.

3) 조성운(1994), 「조선 후기 서울의 인구 증가와 공간 구조의 변화」, 『사회와 역사』 43, 한국사학회, 114-117쪽; 고동환(1998), 「조선 후기 서울의 인구 추세와 도시문제 발생」, 『역사와 현실』 28, 190-194쪽 참조.

4) 기실 <포의교집>에서 가장 핵심적 인물은 초옥이다. 특히 초옥의 욕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제기되어 왔다. 초옥의 욕망은 결을 세심히 나눠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조혜란과 권도경, 윤채근의 논의가 가장 주목된다. 이 가운데 윤채근은 초옥을 안테고네적 인물로 해석하고 라캉의 논의를 끌어와 분석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 보이는 초옥에 대한 시각은 윤채근의 논의와 유사한 지점이 있다. 하지만 필자는 양파와 초옥을 넘나드는 행동에서 비롯되는 이중성과 정체성의 혼란을 퇴행적이고 전근대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기에 이전 논의와는 분명한 차이가 드러난다. 윤채근의 논의에 대해서는 『한문소설과 욕망의 구조』, 소명출판, 2012의 1장 「포의교집에 나타난 근대적 욕망 구조」 2-3절을 참조하기 바란다.

5) 실제적 의미는 초옥의 내면에서 발현된 자아성찰적 욕망이 아닌 선망하는 누군가가 되고 싶은 모방욕망을 기술하고자 라캉의 표현을 차용한 것이다. 라캉에 대해서는 손호머 지음, 김서영 옮김(2006), 『라캉 읽기』, 은행나무 참조.

마치 정절을 고수하기 위한 것인 양 여러 번에 걸친 자살시도를 결행⁶⁾하는 것에서도 마 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다.

일종의 ‘사대부 따라하기’라 할 수 있을 것인데, 초옥의 이런 행동은 反烈女⁷⁾라기 보다는 ‘의사열녀’ 또는 ‘모방열녀’의 성격이 짙다.⁸⁾ 하지만 근본적으로 초옥의 행동은 낭만적 착각에서 비롯된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녀는 본질적으로 사대부가의 여성이 될 수가 없다. 다만 스스로 착각 속에 빠져 있을 뿐이다.

이렇듯 초옥은 하층민 여성이란 본질에서 탈피하고자 사대부가 여성의 행동을 맹렬하게 모방하지만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초옥의 욕망은 사대부가 여성을 모방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불륜을 감행하면서까지 사대부가의 여성처럼 대우받고 싶은 갈망은 폭발적이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남성에게 대한 우호적 시선 또는 남성의 사회적 위상을 인정하는 시선에 머물러 있다. 자신의 욕망을 해결하는 또 다른 수단마저 결국 남성으로 환원되고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 초옥의 자아는 결코 진일보된 성장을 이루지 못한다. 게다가 새로운 남성을 원하는 것 또한 그들과 짝을 이루고자 하는 가족구성주의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기까지 하다. 20세기 초 신여성으로 대변되는 여성들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 욕망이 분출됨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은 새로운 가족주의를 향해 귀속된다는 점에서 개인적 욕망에 그칠 뿐 사회적 욕망으로까지 전화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4. 욕망 투쟁과 가족 해체의 길항 관계와 그 의미

〈포의교집〉은 사대부 남성 이생의 욕망과 하층민 여성 초옥의 욕망 그리고 초옥 남편의 욕망이 상호 충돌하는 지점에서 출발한다. 각자의 욕망추구는 가족의 유지와 해체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작용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세 인물 사이에서 빚어지는 욕망의 함수 관계는 인물 간의 상호관계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가족의 존재가치와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빚어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면 먼저 초옥과 양과 사이의 간극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작중에서 여성주 인공은 양과를 벗어나 초옥으로 존재하려고 한다. 초옥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수반되는 투쟁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는다. 이른바 초옥의 인정투쟁⁹⁾이라 할 수 있다.

이때 그녀가 인정받으려 한 대상으로 부각된 인물은 몰락 양반인 이생이었다. 하지만 이생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던지려 하지 않으며 그럴 생각도 없었다. 따라서 초옥의 ‘知己’ 욕망은 인정투쟁을 야기했으나, 본질적으로 인정받고픈 대상을 잘못 파악한 자신의 오해와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오히려 가족의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인물은 초옥의 남편이다. 남편의 시선으로 본다면, 아내는 초옥이 아닌 양과로 인지되어야 하는 존재였다. 그녀가 초옥으로 전화하려는 욕망을 표출할수록 그 역시 자신의 소유물을 뺏기지 않으려는 욕망을 분출한다.

6) 〈포의교집〉, “楊婆緩緩而起, 引劍自刎, 手遊虛過. 再刎之際, 老楊驚奪之. 楊婆又引在傍小刀, 老楊又奪之. 其申時量, 楊婆瞰房內無人, 暗自經其頸於架下, 被同媪喜母之救, 自此居房守之. 其夕初昏, 楊婆出外投井. 井雖深而幸雙瓢浮水, 身未及沒, 而為諸人救出. 時值水塞井, 石多觸身多所傷. 其曉又投井, 汲水諸人, 盡力救出, 水從鼻口而出, 半晌不死. 其夕又結項, 為媪父所救. 今曉又結項, 亦為人所救, 則其志必死乃已.”

7) 초옥의 반열녀적 성향에 대해서는 김수연(2011), 「〈포의교집〉 주인공 초옥의 反烈女적 성격」, 『고소설연구』 31, 한국고소설학회.

8) 초옥의 욕망을 모방의 성격에서 분석한 논의는 권도경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본고의 논의는 초옥의 모방욕망은 전근대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하층민의 사대부 따라하기에 머물러 있으며, 근대성으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시각에서 이전의 논의와는 시각이 다름을 지적해 둔다.

남편의 울분은 느닷없는 가족 해체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본인의 아내였다는 점과 자신의 가족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깨지면서 존재가 무시당한 데 대한 고통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기에 남편은 가족을 유지하면서 무시당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다. 그것은 자신의 명예와 존재 기반인 가족 해체를 방어하는 최후의 기제로 사용된 수단이었다.

초옥과 이생의 불륜은 초옥의 가족에게 큰 상처를 남긴다. 이생의 가족은 전혀 타격을 받지 않았다. 오로지 초옥의 가족만이 욕망의 부산물로 전락하는 비극적 결과를 맞게 된다. 애당초 작품 속에서 가족의 존재는 그다지 크게 부각되지 않았으며 주목받지도 못했다. 어디까지나 환경으로만 자리했다. 하지만 개인의 욕망이 부각되면서 가족의 존재 또한 수면위로 부상하게 된다. 초옥과 남편, 그리고 이생에게 마치 공기처럼 존재했던 가족이 존재를 부정당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다. 초옥의 욕망과 남편의 욕망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가족 해체가 견인되며, 이를 통해 개인의 욕망과 가족 해체 사이의 길항관계가 형성된다.

가족의 시선에서 작품을 들여다보면 작중의 배경이 되는 1864년에서 1866년 사이 서울이란 공간에 존재한 남녀의 인식 기저에 가족의 의미가 과연 어떠한지 회의를 품게 된다. 이점은 19세기 조선에서 가족이 가지는 의미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포의교집>을 통해 형상화 된 가족은 신분계급을 뛰어넘는 남녀의 다양한 욕망이 표출되는 공간에서 유명하고 있을 뿐이다. 즉 욕망과 가족의 충돌을 통해 욕망이 우위를 점하면서 가족이 사회질서유지의 기준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시대로 이행하고 있음을 표상하는 것이다.

가족주의는 사회 구성의 기본적 틀로 욕구 해소와 재생산의 기능이 있으나 그 이면에는 개인의 욕망을 구속하는 장치로서의 의미가 내장되어 있기도 하다. 때문에 남성가부장으로 표상되는 국가는 가족을 조종하여 구성원인 인간을 통치하고자 하였고 특히 여성을 철저히 통제하는 수단으로 남성과 가족을 이용하고자 했다.

이때 작품의 구도를 욕망=여성/가족=남성의 공식으로 환치시켜 보면 중요한 현상이 발견된다. <포의교집>은 작품 전반에 걸쳐 욕망<가족의 공식이 우세하다. 이는 여성(초옥)>남성(이생 및 여타 남성 등장인물)의 경우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욕망<가족으로의 공식은 기저에 깔린 시각으로 존재했음을 인식해야 한다. 즉 작품 내에서 남성으로 대표되는 모든 인물은 곧 가족주의에 포섭되었고, 기득권으로 표상되었으며, 그것은 국가주의와 연결된 것이었다. 가족(남성)은 욕망(여성)이 우세할 때 더 큰 욕망을 분출시키지 않도록 존재적 위협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욕망과 타협한다. 어디까지나 가족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다.

욕망과 가족의 대립 과정에서 가족의 생존권이 집단적 위협을 받게 되면 욕망은 순식간에 휘발된다. 여성이라는 욕망이 남성이라는 가족에 결국 포섭되어버린 것이다. 이점에서 <포의교집>은 불륜이란 금기를 통해 촉발된 욕망의 분출이 가족해체라는 또 다른 금기를 건드리는 순간을 포착하고 있다.

9) 인정투쟁이란 용어는 악셀 호네트의 개념을 차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악셀 호네트 지음, 문성훈·이현재 옮김(2011), 『인정투쟁-사회적 갈등의 도덕적 형식론』, 사월의책 참조. 한편 고전소설 분석에 있어 정신분석학이나 서양철학을 활용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고전 분야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못하다. 고전소설과 정신분석학의 관련에 대해서는 강상순(2016), 『한국 고전소설과 정신분석학』,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참조.

〈포의교집〉은 욕망과 가족이라는 이항 대립의 문제가 내재된 작품이다. 욕망의 분출은 가족 해체와 연결되기에 가족 문제를 주목하지 않는 독해는 일방적 시선으로 가려질 뿐이다. 19세기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욕망과 가족의 충돌은 충분히 예상가능한 지점이다. 작품 내에서 가족이 전면으로 부상하진 않았으나, 실재한 장벽의 세계로 작동하고 가족이 부각될수록 욕망이 소외, 위축되는 현상 사이의 시소게임을 〈포의교집〉은 정면으로 응시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5. 맺음말 - 고소설을 통해 본 가족 담론의 전환 문제

고소설에 등장하는 남녀 주인공의 욕망의 접합은 가족 구성의 서사를 완성하기 위해 마련된 조건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초기 서사는 상호 다른 입점의 개인적 욕망이 전면에서 부각되어 충돌하지만 그 이면에는 가족의 구성이라는 상호 동일한 욕망에 대한 성취가 내재되어 있다.

이들 상호 결핍된 존재의 욕망이 충족될 수 있는 바탕은 바로 결혼, 즉 가족 만들기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초기 서사에 나타난 가족은 전면적이지 않다. 그러나 이면에는 남녀주인공들을 끊임없이 자극하여 가족 만들기를 추동하는 배경으로 존재한다. 가족 구성에 대한 암묵적 압력이 작품 속에 투입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당대에 가족이라는 권위가 지닌 무게감이 반영된 시선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그러한 시선 속에는 일정 부분 가족의 권위가 막강한 것에 대한 비판적 시선의 흔적 또한 내재된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고전소설사 전반에 걸쳐 작품의 창작시기별 결혼 관습과 제도 및 법의 시행 양상과 그 문학적 반영에 대한 정밀한 탐색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결혼이란 제도가 재생산의 역할로 대변되었던 전통시대에 역사적 전환기에 따라 결혼제도가 전변된 방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예를 문학작품 내에서 적출할 수 있다면 전통시대 가족제도를 대하던 시선이나 인식 변화의 흐름을 간취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럴 경우 전통시대 문학의 입장에서 가족을 바라보던 시각을 기존과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게 된다.

본고는 이점을 주목하여 욕망과 가족 담론을 읽어내려 한 시론적 성격의 논의이다. 전통시대 욕망과 가족의 문제는 17세기를 기점으로 문학작품 속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전통시대 가족 담론의 변화를 고소설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논의는 현시대의 가족의 의미를 응시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소환하려는 것이다. 본고의 논의를 발판으로 고소설에 표상된 가족의 통시대적 변화상을 추적하여 그 의미를 밝히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포의교집〉

- 악셀 호네프 지음, 문성훈·이현재 옮김(2011), 『인정투쟁-사회적 갈등의 도덕적 형식론』, 사월의책.
손 호머 지음, 김서영 옮김(2017), 『라깅읽기』, 은행나무.
강명관(2009), 『열녀의 탄생』, 돌베개.
강상순(2016), 『한국 고전소설과 정신분석학』,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윤채근(2012), 『한문소설과 욕망의 구조』, 소명출판.
이우성·임형택 편역(2018), 『이조한문단편집』 1, 창비.
장병인(2018), 『법과 풍속으로 본 조선 여성의 삶』, 휴머니스트.

가족커뮤니티
FAMILY COMMUNITY

FOCUS

통계동향

<가족커뮤니티 그래픽스> 가족구성과 결혼의식의 변화

<가족통계동향> 우리가 알던 ‘가족’은 사라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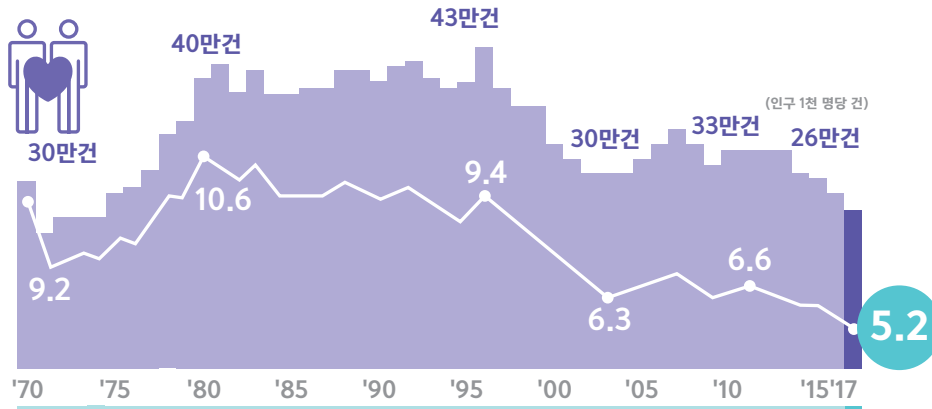
*「통계동향」은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수집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와 기초사자료, 통계자료를 활용 및 재구성하여 한국 가족의 변화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인포그래픽스를 제공합니다.

가족커뮤니티
그래픽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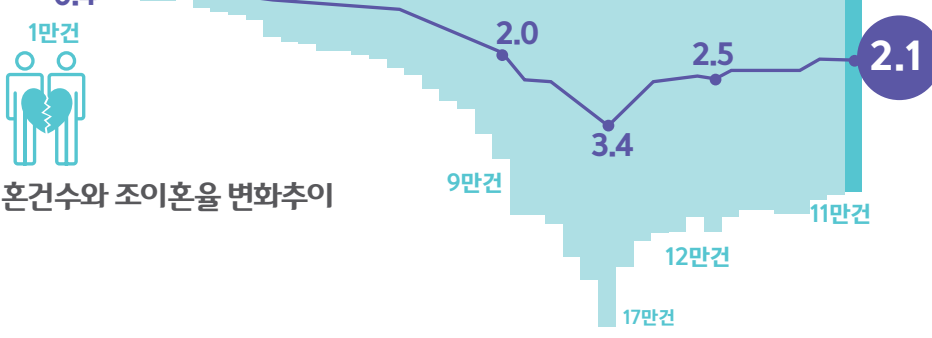
가족구성과 결혼의식의 변화

인구주택총조사, 장래인구추계, 사회조사 등을 활용하여 한국사회의 가구 및 가족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고 미래의 가족을 전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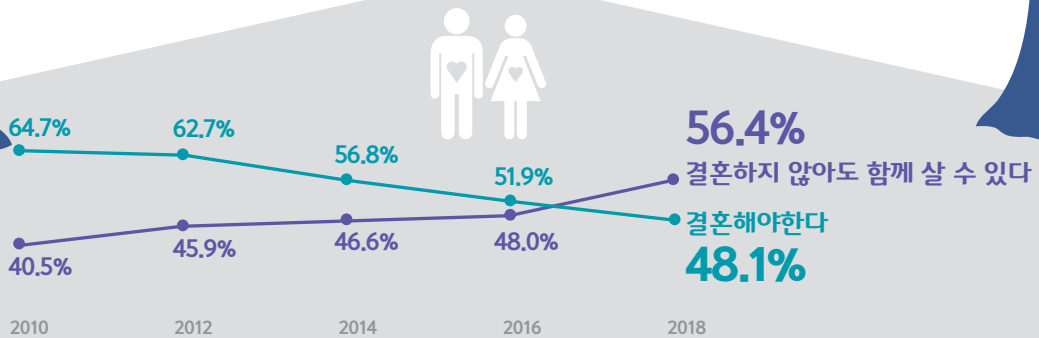
혼인건수와 조혼인을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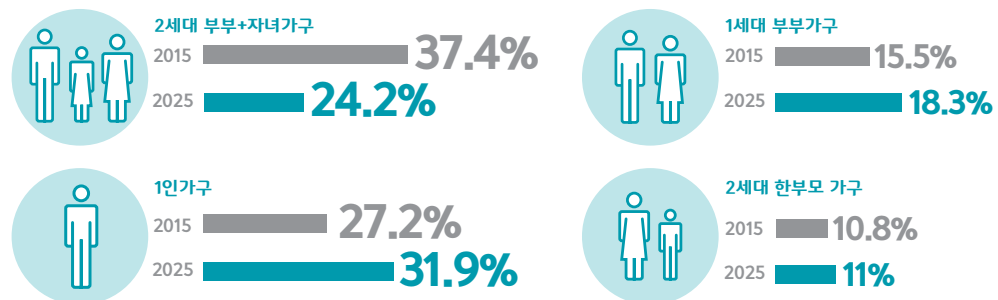
이혼건수와 조이혼을 변화추이



동거와 결혼 의식



가구 구성별 추계가구비



1. 초개인화 시대, 가족인가 개인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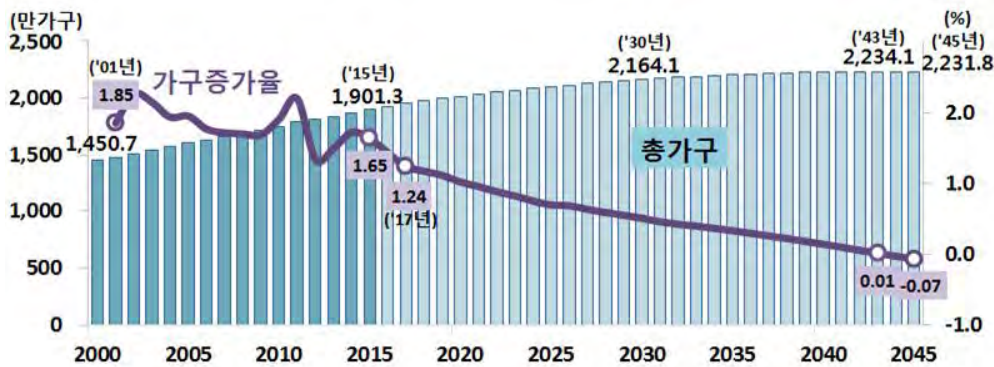
한국의 총 가구는 2017년 1952만 4000가구이고 그 수가 점점 증가하다가 2043년 2,234만 1000가구를 정점으로 감소추세임. 가구 증가율은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증가세가 반영되었으나 2044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시작할 것으로 보임. 2015년 평균 가구원수는 2.53명이지만, 2044년 이후에는 2.1명이 될 것으로 보임.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꾸준히 늘어나서 2015년 기준 366만 가구에서 2045년 1065만 가구(47.7%)로 2.9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 고령자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5년 19.3%에서 2045년 47.7%로 전체 가구의 절반정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표 1] 가구, 가구증가율 및 평균가구원수, 2000-20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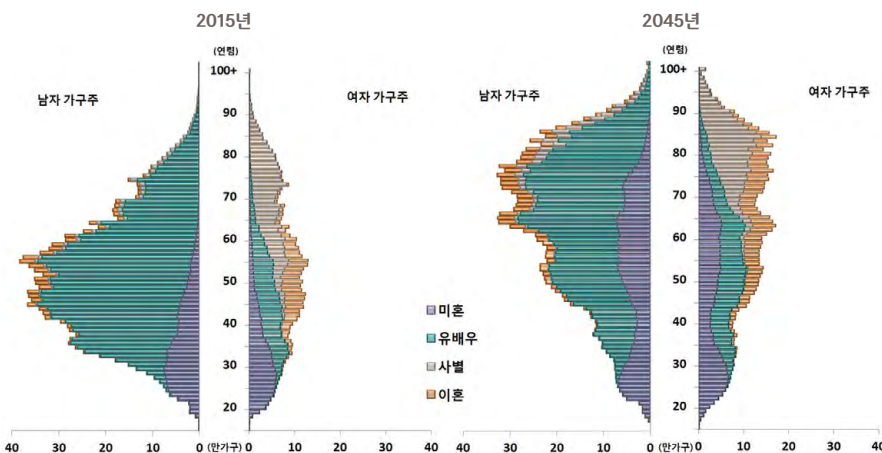
(단위 : 만가구, %, 명)

		2000	2005	2010	2015	2017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일반 가구	가 구	1,450.7	1,603.9	1,749.5	1,901.3	1,952.4	2,017.4	2,101.4	2,164.1	2,206.7	2,230.6	2,231.8
	증가율		1.95	1.90	1.65	1.24	1.02	0.69	0.50	0.33	0.14	-0.07
평균 가구원수		3.12	2.88	2.70	2.53	2.48	2.42	2.34	2.28	2.22	2.17	2.10



[그림 1] 총가구 및 가구증가율, 2000-20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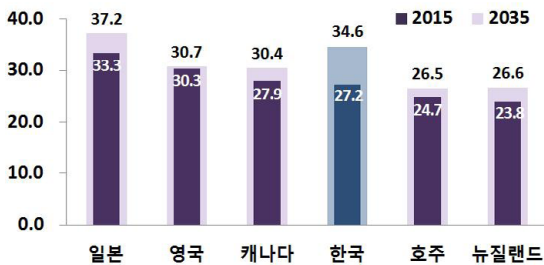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2017), 장래가구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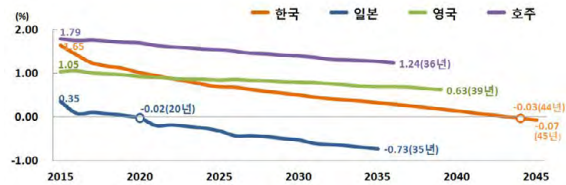
[그림 2] 성·연령·혼인상태별 가구주

출처: 통계청(2017), 장래가구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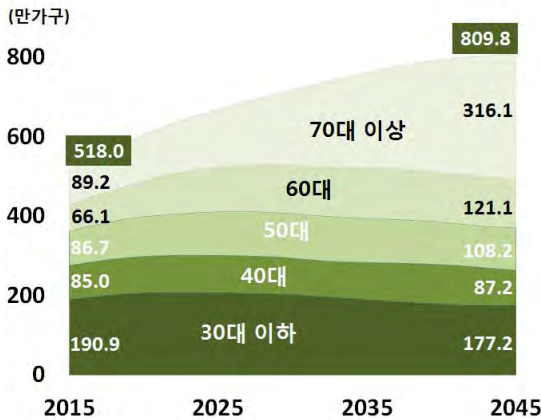
일본, 영국, 호주 모두 가구증가율은 둔화 추세임. 일본은 2020년부터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전망. 한국의 1인 가구 비중은 2015년 기준 호주(24.7%), 뉴질랜드(23.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2035년에는 영국(30.7%), 캐나다(30.4%) 보다 높은 수준임. 2015년 전체 가구 중 1인가구 비중은 27.2%(518만 가구)에서 2045년 36.3%(809만 8천 가구)로 9.1%p(291만 9천 가구) 증가할 전망. 2015년 1인가구 중 30대의 비중이 18.5%(95만 8천 가구)로 가장 높지만, 2045년에는 1인가구 중 70대가 21.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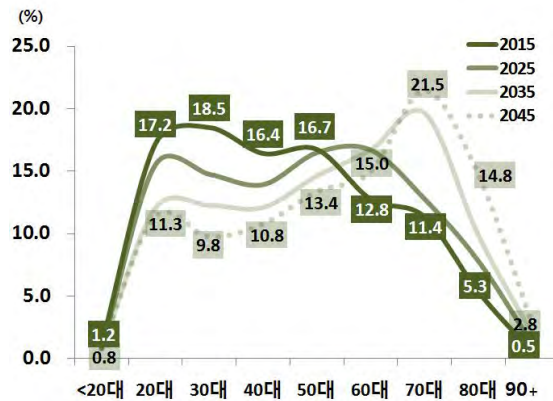
[그림 3] 국가별 1인가구 구성비, 2015, 2035



[그림 4] 국가별 가구 증가율 전망



[그림 5] 1인가구 연령별 규모, 2015-2045



[그림 6] 1인가구 연령별 구성비, 2015-20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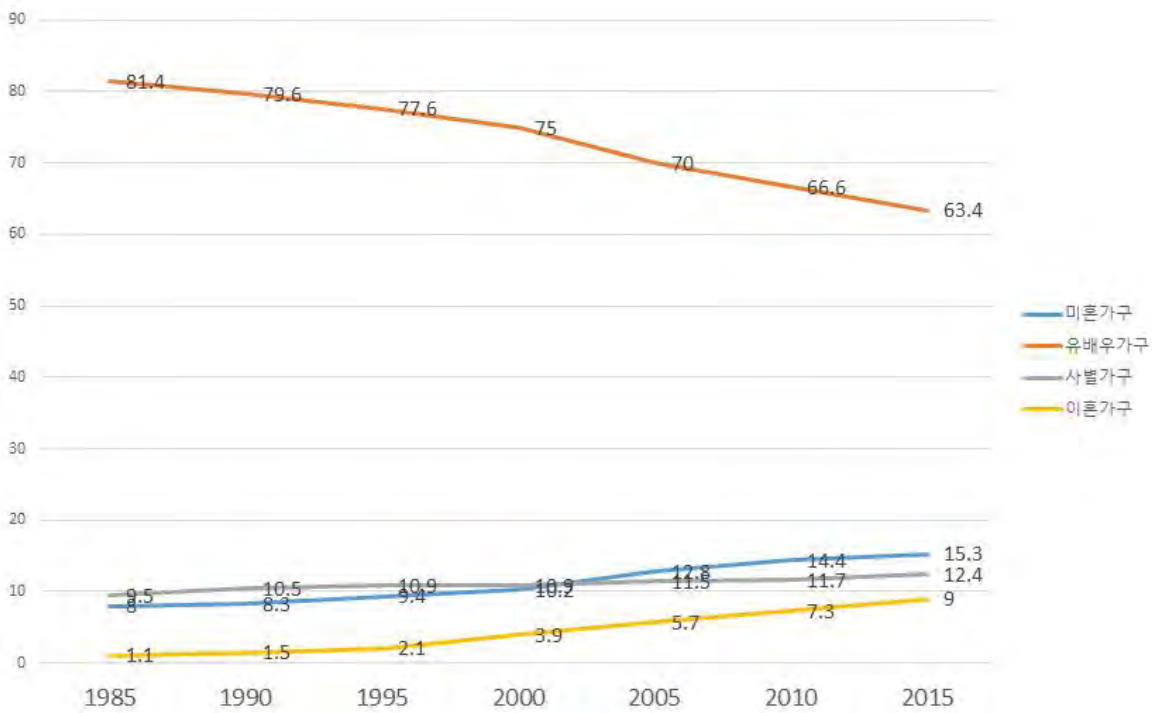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2017), 장래가구추계

우리나라 혼인상태별 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유배우가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가운데 미혼가구, 사별가구, 이혼가구가 증가추세임. 1985년 미혼가구는 8%였으나, 2015년에 15.3%로 약 2배 정도 증가하였음. 이혼 가구 역시 1985년 1.1%에서 2015년 9%로 8배 이상 증가하였음.

[표 2] 혼인상태 별 가구비율

(단위 : %)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미혼가구	8	8.3	9.4	10.2	12.8	14.4	15.3
유배우가구	81.4	79.6	77.6	75	70	66.6	63.4
사별가구	9.5	10.5	10.9	10.9	11.5	11.7	12.4
이혼가구	1.1	1.5	2.1	3.9	5.7	7.3	9



[그림 7] 혼인상태 별 가구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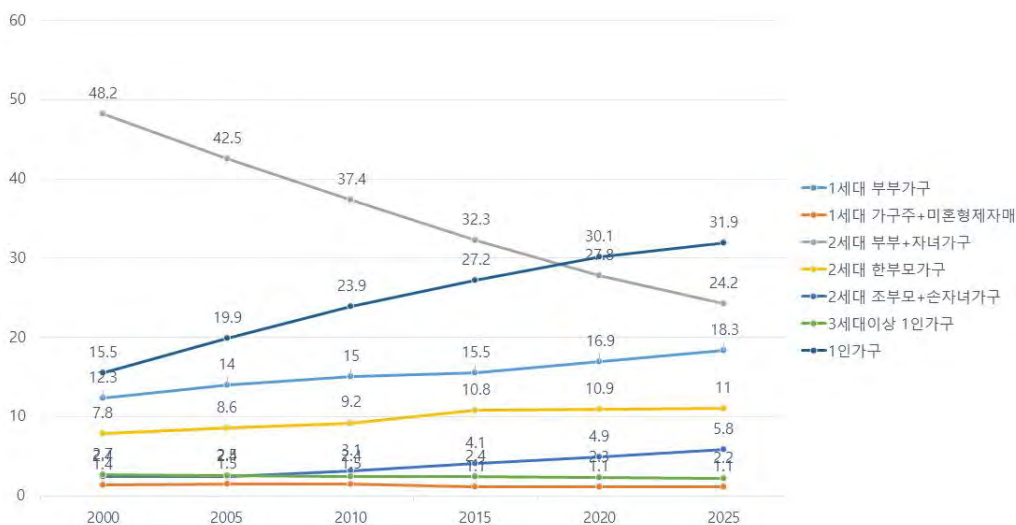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통계, 각년도별

1세대 가구는 부부가구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 부부가구는 2000년 12.3% 였으나 2025년에는 18.3%로 약간 증가할 것으로 보임. 2세대 가구 중 핵가족의 형태를 띤 부부와 자녀로 구성되는 가구의 비율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2000년 48.2%였으나 2025년에는 24.2%로 약 2배 정도 감소할것으로 예측됨. 한부모가구와 조손가족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한 부모가구는 여성가구주가 남성가구주에 비해 2000년도부터 꾸준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2025년에는 7.8%로 예상됨. 조손가족은 2000년 2.4%에서 2025년 5.8%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3세대 이상 대가족은 전체가구 중 가장 낮은 비중 가운데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1인 가구는 2000년 15.5%에서 급속히 증가하여 향후 2025년에는 31.9%로 가구 형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됨.

[표 3] 가구구성별 추계가구비

(단위 : %)

가구구성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1세대	부부가구	12.3	14.0	15.0	15.5	16.9	18.3	
	가구주+미혼형제자매	1.4	1.5	1.5	1.1	1.1	1.1	
	기타	0.5	0.5	0.6	0.7	0.7	0.8	
	합계	14.2	16	17.1	17.3	18.7	20.2	
2세대	부부+자녀	48.2	42.5	37.4	32.3	27.8	24.2	
	한부모가구	부+자녀	1.5	1.8	2.0	2.8	3.0	3.2
		모+자녀	6.3	6.8	7.2	8.0	7.9	7.8
	부부+양친	1.0	1.0	0.9	0.8	0.7	0.7	
	부부+부(모)	0.7	0.5	0.3	0.4	0.4	0.3	
	부부+자녀+형제자매	0.7	0.8	0.6	0.6	0.6	0.6	
	조부모+손자녀	2.4	2.4	3.1	4.1	4.9	5.8	
	기타	5.6	4.4	3.8	3.0	2.4	1.9	
	합계	75	71.8	68.6	66.3	64	62.8	
3세대 이상	2.7	2.5	2.4	2.4	2.3	2.2		
1인 가구	15.5	19.9	23.9	27.2	30.1	31.9		
비혈연가구	1.1	1.4	1.2	1.1	1.2	1.3		



[그림 8] 가구구성별 추계가구비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통계, 각년도, 2015년 이후는 추계임

2. '이제' 결혼하십니까? '아직(도)' 결혼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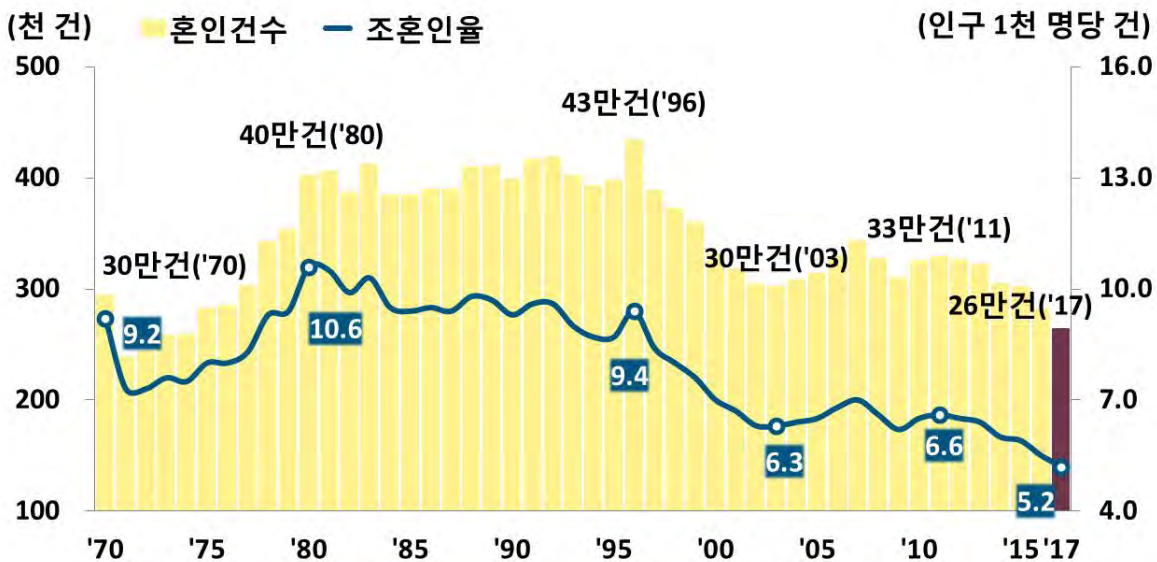
우리나라 혼인행태에서 만혼화와 더불어 비혼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초혼 연령 상승(조혼인율 감소)에서 단적으로 보여짐. 2017년 인구 천 명당 혼인 건수인 조혼인율은 5.2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970년 통계작성 이후 최저치임. 혼인건수는 2012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음.

[표 4]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2007-2017

(단위 : 건,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혼인건수(천 건)	343.6	327.7	309.8	326.1	329.1	327.1	322.8	305.5	302.8	281.6	264.5
증감(천 건)	12.9	-15.8	-18.0	16.3	3.0	-2.0	-4.3	-17.3	-2.7	-21.2	-17.2
증감률(%)	3.9	-4.6	-5.5	5.3	0.9	-0.6	-1.3	-5.4	-0.9	-7.0	-6.1
조혼인율*	7.0	6.6	6.2	6.5	6.6	6.5	6.4	6.0	5.9	5.5	5.2

* 인구 1천 명당 건



[그림 9]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추이, 1970-2017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통계, 각년도별



우리나라 총 이혼건수는 1980년 23.7천건에서 1990년 45.7천 건으로 10년간 2배 증가하였음. 200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0년 이후부터 소폭 감소하였음. 조이혼율도 1980년 인구 천명당 0.6건에서 1990년 1.1건, 2000년에는 2.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0년부터 다소 감소하는 추세로 2017년 기준 2.1건임. 한편 혼인건수 대비 이혼건수의 비율은 1980년 5.9%에서 2017년 40.1%로 37년간 약 7배 증가하여 빠른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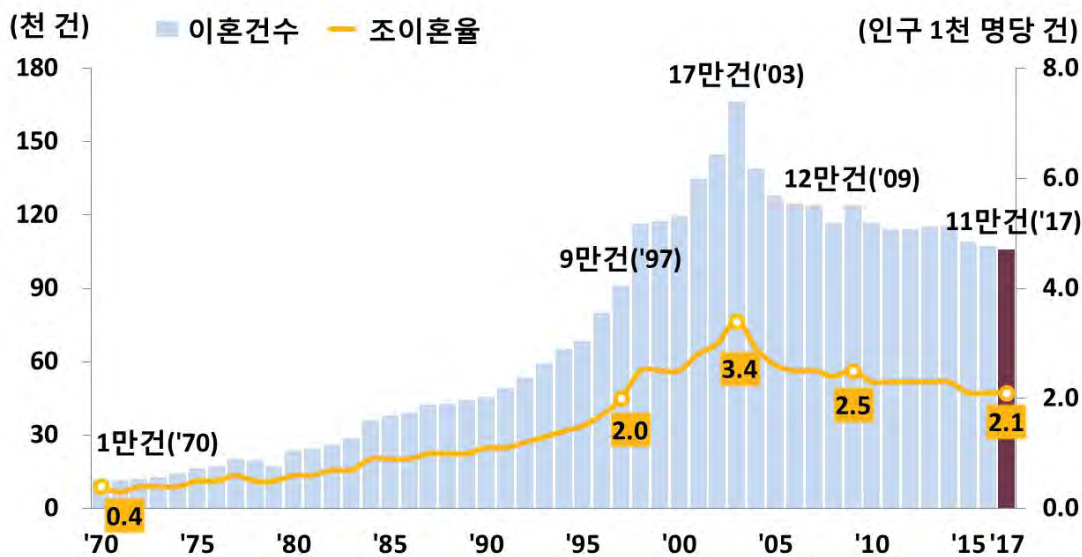


[표 5] 총 이혼건수와 조이혼율, 1980-2017

(단위 : 천건, 인구 천명당 이혼건수, %)

구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3	2015	2017
총 이혼건수	23.7	38.2	45.7	68.3	119.5	128.0	116.9	115.3	109.2	106.1
조이혼율	0.6	1.0	1.1	1.5	2.5	2.6	2.3	2.3	2.1	2.1
혼인건수대비 이혼건수	5.9	9.9	11.4	17.1	36.0	40.7	35.8	35.7	36.0	40.1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년도



[그림 10]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추이, 1970-2017

출처: 통계청, KOSIS, 각 년도. 2017년 혼인이혼 통계.



혼인종류별 혼인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초혼은 감소 추세이며 반면 재혼은 증가추세에 있음. 남성의 경우 1995년 초혼이 89.3%로 최고치였으며, 이후 2005년까지 감소세였음. 이후 약간 증가하였으나 2015년부터 84%대를 유지하고 있음. 반면 남성의 재혼 비중은 초혼율이 가장 낮게 나왔던 2005년에 19%로 최고치였으며, 이후로 약간 감소세임. 여성 역시 1995년 89.3%로 초혼비중이 높았으며, 이후 꾸준히 감소하다 2005년 78%로 최저였으며, 2010년 이후 약 82%대를 유지함. 여성 재혼율은 남성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며, 초혼율이 가장 낮았던 2005년에 재혼율이 21.2%로 가장 높았으며, 이후 17%대를 유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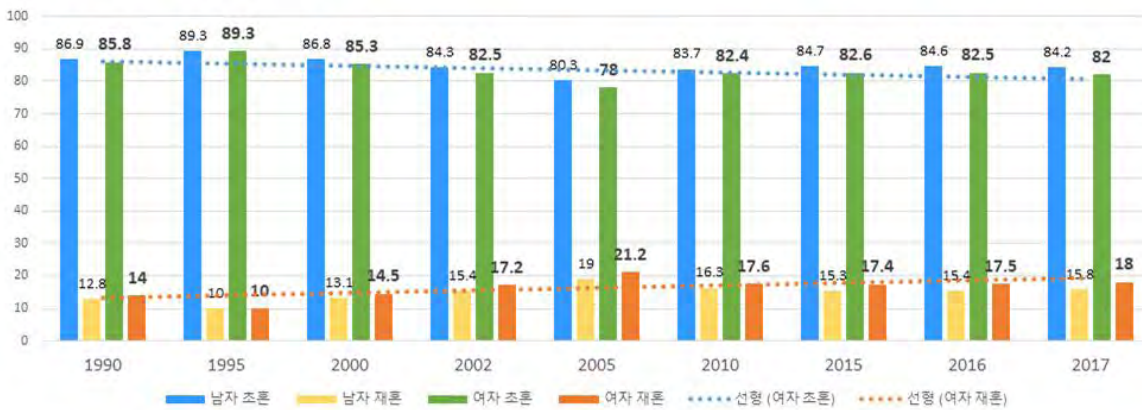
[표 6] 연도별, 혼인종류별 혼인

(단위 : %)

		1990	1995	2000	2002	2005	2010	2015	2016	2017
남자	초혼	86.9	89.3	86.8	84.3	80.3	83.7	84.7	84.6	84.2
	재혼	12.8	10	13.1	15.4	19	16.3	15.3	15.4	15.8
여자	초혼	85.8	89.3	85.3	82.5	78	82.4	82.6	82.5	82
	재혼	14	10	14.5	17.2	21.2	17.6	17.4	17.5	17.9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년도

(단위 : %)



[그림 11] 혼인종류별 남녀 구성비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년도.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인식비율은 여전히 낮은 가운데 시간이 갈수록 소폭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국민 10명 중 2명, 2018년에는 국민 10명 중 3명이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함. 남성(31.9%)이 여성(28.7%)에 비해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2018년 결혼하면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의식을 살펴보면 10명 중 7명은 동의, 10명 중 3명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가임이 활발한 20대~30대 여성의 경우 혼인이 출산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20대는 10명 중 4명, 30대는 10명 중 5명 꼴로 나타나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임. 반면 이들의 부모세대인 50대~60대는 10명 중 8명으로 나타나 결혼은 출산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자녀세대보다 훨씬 높았음. 이는 자녀를 갖지 않는 자녀세대와 손주를 기다리는 부모세대 간 세대갈등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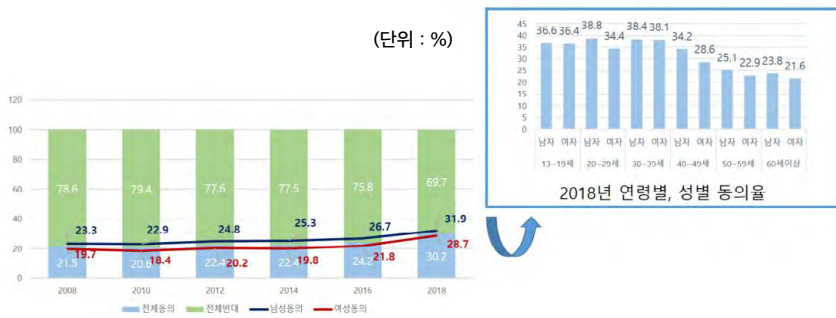


[표 9] 결혼하지 않고 자녀 가질 수 있다는 의식 비율

(단위 : %)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전체동의	21.5	20.6	22.4	22.4	24.2	30.2
전체반대	78.6	79.4	77.6	77.5	75.8	69.7
남성동의	23.3	22.9	24.8	25.3	26.7	31.9
여성동의	19.7	18.4	20.2	19.8	21.8	28.7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그림 12] 결혼하지 않고 자녀가질 수 있다는 의식 비율 자료출처 : 통계청(2018). 사회조사.



[그림 13]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의식 연령 및 남녀별 비율

출처 : 통계청(2018). 사회조사.

3. 나가면서

지금까지 가구 및 가족구조 변화,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 변화 추이를 살펴 본 결과, 가족규모의 축소와 1인 가구, 1세대 가구의 증가, 2세대 가구의 다양화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음. 한국사회의 가족 구조와 인식 역시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이성에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성별관계규범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결혼의식과 자녀출산의식, 가사분담실태에서 확인할 수 있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인 가구는 개인의 생애과정의 다양한 경로에서 구성되고 있었음, 비혼의 청년세대, 이혼한 중장년가구, 노인단독가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1인 가구 이행의 가속화는 공동체로서의 삶의 양식보다는 개인적인 삶의 양식이 보편화될 수 있음을 시사함. 이에 각 1인가구의 특성별 지원과 세분화된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임.

비(미)혼과 이혼의 증가는 출산 및 양육 등 전반적인 가족생애주기를 지연시키거나 탈표준화시킴. 이는 근대이전의 전통적 가족주의, 유교적 가족주의의 시스템의 몰적, 규범적 토대가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가족형태의 전형성이 약화되고 유연화 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함.

이혼평균 연령의 증가는 황혼이혼의 증가를 보여주며, 재혼의 증가는 ‘평생의 반려자 또는 백년해로’가 이제 옛말이 되었음을 보여줌. 가족관계 및 부양가치관이 약화되고, 이혼가치관의 허용도가 높아지면서 가족 분화속도가 빨라짐. 특히 재혼의 증가는 중장년 이후의 결혼 증가를 예측할 수 있으며, 황혼이혼의 증가와 더불어 황혼 재혼은 또 다른 가족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임.

동거에 대한 남녀 및 성별 의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음. 이는 세대별, 성별 가치관이 상충하는 것을 보여주며, 결혼을 둘러싼 세대갈등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함. 젊은 세대에서 동거찬성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앞으로 결혼선택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결혼적령기 세대의 동거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을 살펴보고, ‘결혼’을 통해서 만들어진 가족이 아닌 다양한 ‘가족’을 어떻게 지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임.

현재의 저출산(생) 현상은 결혼의 가치와 의미 변화 뿐만 아니라 변화되지 않은 젠더 규범을 수행해야 하는 여성들의 가족(관계)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냄. ‘저출산정책’은 출산의 주체인 여성이 노동시장에서의 경력단절과 같은 불평등의 문제와 조건을 개선하지는 취지로 만들어져야함. 그러나 ‘인구소멸’을 이슈로 삼은 지방정부에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우선시하면서 ‘가임기’지도를 만드는 등 여성들을 출산 도구화하자 많은 비난에 부딪힘. 더불어 청년세대는 ‘헬조선’의 고통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음.¹⁾ 부족한 일자리의 문제와 고령인구 부양에 대한 염려 속에서 저출산을 지지하기도 함. 이는 청년세대 내에서 결혼과 출산이 미래의 위험(risk)이자

1) 김기현·이윤주·유설희(2017)이 전국 15~39세 남녀 25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1.4%가 “결혼을 망설였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42.4%는 “자녀를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다”는데 동의했다.

또 다른 비용(cost)으로 인식됨을 보여줌.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더 이상 생애사적 전환의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있음.

결혼이 가지는 가치와 의미를 재진단하기 위해서는 저출산이 ‘문제’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 그간의 가족정책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국가발전 전략이라는 근본적 문제의식 속에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미시적이고 현상적인 접근 속에서 제시되었음.

다양한 가족의 등장에 대한 현상적 대책, 사회구조적 대응을 위한 정책 개발 이전에 보다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질 필요가 있음. 이진옥(2018)이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 쟁점을 검토한 글에서 주장하였듯이, 패러다임의 전환은 “선언적 구호이자 정책적 언어 이상으로 대항과 숙의의 정치적 과정을 통해 다양성과 교차성을 담지한 풍성한 담론의 장소가 되어야 함.” 가족 패러다임 대전환이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선언적 수사가 아니라 기존의 가족정책과 사회과학적 프레임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전환시킬 때 실질적으로 가능할 것임.

참고문헌

통계청(2017), 장래가구추계: 2015~2045

통계청(2018), 2018 사회조사

통계청(2018), 2018 일·가정 양립지표

통계청(2018), 행정자료를 활용한 2017 신혼부부통계 결과 보도자료

통계개발원(2017), 「아동·여성, 출산력 특성 분석」

김기현·이윤주·유설희(2017),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연구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진옥(2018), 「성평등」, 여/성이론 여름 3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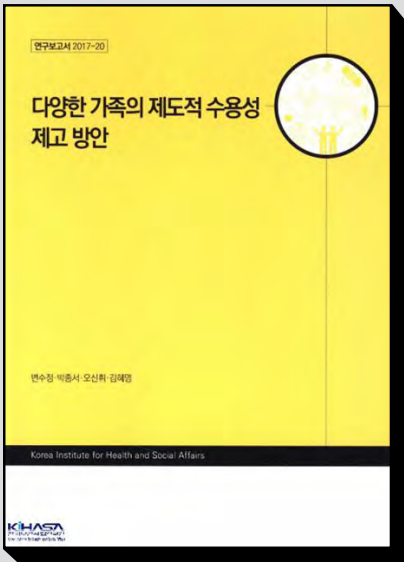
가족커뮤니티
FAMILY COMMUNITY

FOCUS

정책보고서 리뷰

-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성 제고방안
-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정책 10년 평가와 과제

*「정책보고서 리뷰」는 정부의 가족관련 정책과제와 사회이슈를 제공하고, 가족정책 사례와 향후 과제를 소개합니다.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성 제고방안

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책임: 변수정

발행월: 2017.12

종류: 기본 연구보고서

변수정·박종서·오신휘·김혜영(2017),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성 제고 방안』,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문출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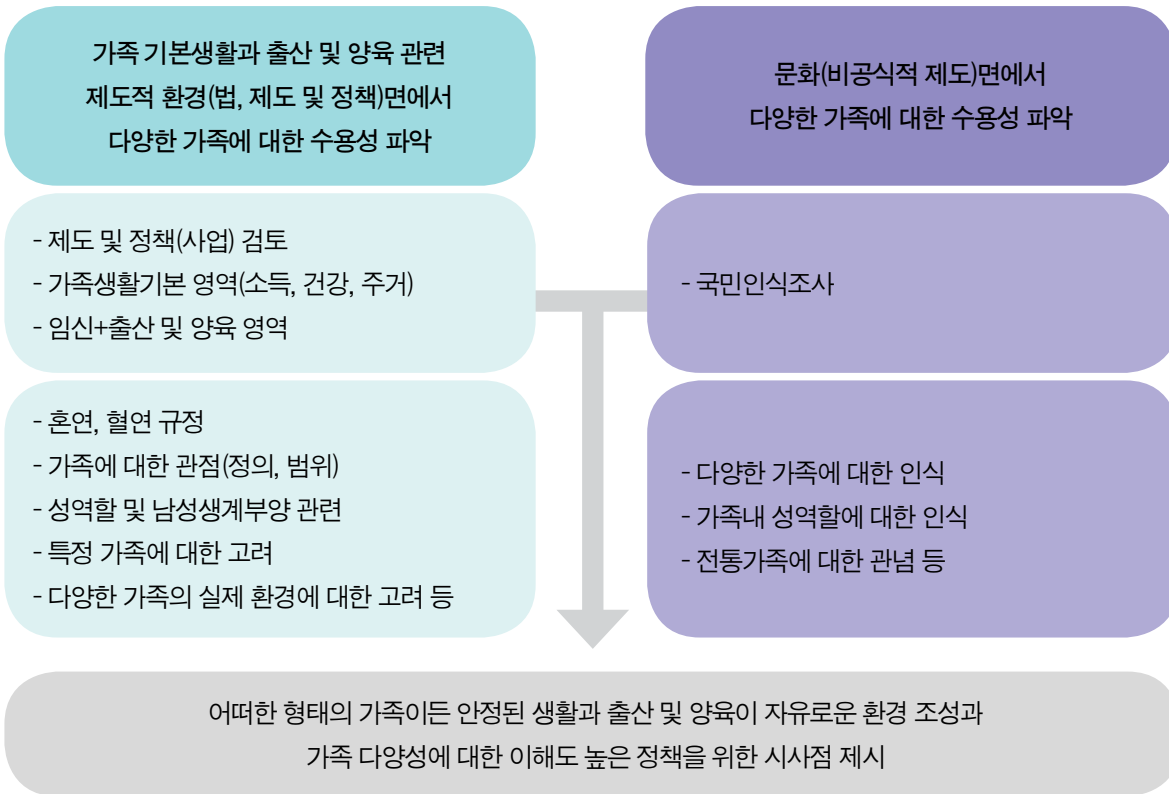
<https://www.kihasa.re.kr/web/publication/research/view.do?division=001&menuId=44&tid=71&bid=12&no=2266>

<배경>

■ 본 연구는 현재 시점에서 우리 제도가 가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가족의 다양한 모습을 얼마나 포괄하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함. 특히 가족의 관념과 인식 및 가치관 등 문화적 차원에서 수용성 정도를 파악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한국사회는 오랫동안 유교적 가치가 중시되었고 그에 따른 가족에 대한 전통적 관념들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어 전통가족이데올로기, 가족중심주의, 가족책임주의 등 가족을 둘러싼 전통 이념 속에서 이해되었음. 다만, 가족의 기능과 역할의 측면은 여전히 구조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이해되어 왔음.
- 법, 제도나 정책이 현대 가족의 새로운 모습을 반영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전통들을 유지해간다면 가족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일부 가족만을 위한 제도로 남을 수 있음. 다양한 가족을 수용하려는 노력은 제 3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제고라는 정책과제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가족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앞으로 가족정책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뿐 아니라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지하고 가족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포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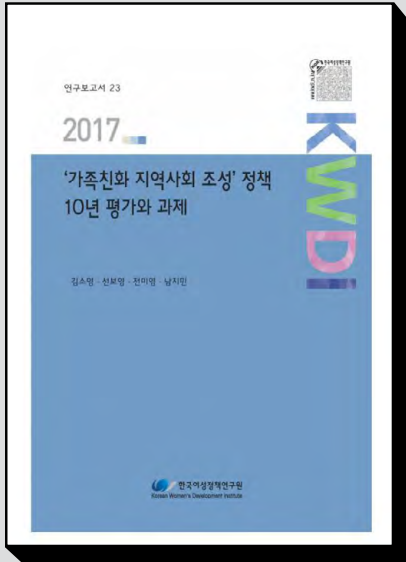
■ 기존 제도와 정책의 한계

- 가족에 대한 관점이 일관적이지 않거나 명확한 관점이 없었음.
- 소득영역: 민법을 기준으로 가족을 개념화 함, 국민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가구나 가족에 대한 조건이 매우 많아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음. 전체제도에 가족에 대한 명확한 범위나 원칙에 따른 접근이 부족, 가족의 범위나 각각 가입자 조건에서 통일된 규정이 부재함.
- 출산영역: 모자보건 사업 내 가족 수 산정이나 범위 상이함. 신청과정에서 신청가능 가족들은 한정되어 있으며 기준이 무엇인지 불명확함. 특히 가족단위로 제한하는 것은 정책 의도나 가족의 상황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음. 신청절차나 대리인의 기준이 다양한 가족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가족 내 돌봄을 제공하는 주변인물이 없어 돌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상황도 발생되고 있었음. 우리사회 어떠한 특정 형태의 가족위주로 정책이 이루어지는 체계의 한계가 있음과 동시에 기존에 특정가족에게 필요하지만 충분히 지원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음.
- 혼인관계: 혼인관계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함. 현재 법적인 혼인관계를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사실혼 관계에 대한 인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지원대상이 직접 부부가 되고 있는 사업에서는 사실혼이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음. 한 제도 안에서도 어떤 경우는 인정되고 어떤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 등 혼재되어 있어 사실혼 관계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것임.

- 문화적 측면: 우리사회는 여전히 다양한 가족형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개개인 스스로에 대한 평가에서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이 없다고 생각해 사회적 편견과 개인적 편견의 수준 사이에 차이가 있었음. 가족형태의 다양성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고 그 비율 또한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사회적으로 가족형태에 대한 편견제거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을 만들어가야 함. 이를 통해 모든 가족과 그 안의 개개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나 정책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임.

<시사점>

- 가족의 상호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개선 가능한 부분을 발굴하고 고쳐나가야 함. 특히 임신,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부분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원한다는 인식이 들도록 보편적 사례에서 벗어나 산모나 영아, 가족까지 빠짐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함.
- 우리사회의 대표가족이 핵가족이라는 전제에서 벗어나 설계단계부터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해 배제되는 가족이 없어야 함. 혼인관계 규정을 검토하는 것을 시작으로 제도 및 정책 설계 시 사실혼 인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특정가족에 대한 사회, 문화적 편견 제거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함.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특정가족유형을 위한 것만이 아닌 우리사회 모든 가족에게 편리하고 긍정적인 영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임.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정책 10년 평가와 과제

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 김소영

발행월: 2017.12

종류: 기본 연구보고서

김소영·선보영·전미영·남지민(2017),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정책 10년 평가와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문출처: <http://www.kwdi.re.kr/publications/reportView.do?page=1&idx=115071>

<배경>

- 이 연구는 가족변화의 측면에서 그동안 여성가족부가 추진해 온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을 되돌아보고, 정책의 재구성 방향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음.
-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한국의 가족을 고려할 때 가족구성의 선택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가족미래를 전망한 국내외 연구(장혜경 외, 2014; EU, 2011:39)에서도 가족을 둘러싼 환경 조성의 중요성은 지적된 바 있음.
- 지역사회는 개인과 가족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장으로, 가족변화의 양상이 점차 뚜렷해지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친화적인 지역 환경 조성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투자가 요구됨.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친화법')에도 지역사회 내에 가족친화 관련 인프라 등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참여 가능한 공간을 조성해야 할 정부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음(법 제3조, 제13조). 그럼에도 정책 시행 10년여 동안 가족친화 지역사회(마을환경) 조성 정책의 추진은 미진했음.

<주요내용>

■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 성과와 한계

- 정책의 성과: 「가족친화법」의 제정과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등 다양한 법, 제도적 토대를 확충함.
- 정책의 한계: 가족과 가족친화적 지역환경을 매수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음. 가족친화적 환경을 주로 지역사회 중심의 자녀양육 친화환경 조성이나 출산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으로 해석되기도 함.
- 제안 사항: 가족친화 지역사회조성 정책은 ‘가족친화적 환경이란 무엇인가’,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인프라인가, 관계맺음인가’,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을 위해 적절한 지원체계는 무엇인가’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검토되고 수정될 필요가 있음.

■ 가족친화 사회환경 재구성을 위한 가족변화의 모습과 의미 조명

- 트렌트로 포착한 가족 변화의 모습과 2040세대 연속 집담회를 통해 본 가족 의미변화를 진단함.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정책의 대상과 범위의 변화와 더불어, 물리적 인프라 조성 중심의 지역사회 조성정책을 새로운 관계맺음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기함.

구분	발견트렌드	의미	세부내용	하위 키워드와 신조어
공간	플랫홈(Plat-home) 집, 플랫폼이 되다	▶ 가족이 시간을 보내는 주거 공간에서 다양한 목적의 생활플랫폼으로 진화	▶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조화 ▶ 기능중심으로 재정의 되는 집	▶ 홈족/홈이코노미/집콕족/Back to home ▶ Homecation/스테이케이션/홈루덴스/홈엔터테인먼트 ▶ 홈트레이닝/홈짐 ▶ 플랜테리어/그린너리/그린테리어 ▶ 홈오피스, 홈라이브러리, 홈웨이
관계	보나파이드, 진정한관계, 가족관계를 재구성하다	▶ 혈연중심의 가족관계의 밀도 변화 ▶ 다양한 관계 맺기 양상 따른 가족 형태 재구성	▶ 함께 살지 않아도 지속되는 가족관계 ▶ 혈연을 벗어난 가족 등장	▶ 졸혼시대 ▶ 반려문화/반려동물/펍코노미/반려식물/애션시대/잡라적인집사/펫팸족/금수저펫 ▶ 셰어하우스/공동체마을
주체	초개인화(Hyper individual)	▶ 가족구성원 개인의 존재가 전체로서의 가족 공동체보다 중요	▶ 나만의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려는 움직임 ▶ 개인적 가치와 공동체적 가치의 혼재	▶ 스칸디맘/아재노미 ▶ 그레이세대/뉴식스티/어반그래니 ▶ 골든키즈/아키텍지즈 ▶ 컨슈니어맘/프렌대디/라떼대디/피딩족/할류족

김소영 외(2017) 재인용

<시사점>

■ 기존 가족지역사회조성정책의 전면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안

- 가족 개념, 구성방식, 범위의 변화와 더불어, 가변적 가족구성 및 가족기능을 지원하는 유연한 정책으로 재구성되어야 함을 강조. 개인으로서의 가족 구성원을 지원하고, 가족 안에서 개인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요구함.

■ 가족변화를 반영한 지역사회조성정책의 재구성 방안

- 새로운 관계맺음을 지원하는 법, 제도적 기반 구축 요구함. 가족친화적 커뮤니티 공간 조성 정책과 더불어 새로운 공공의 영역을 발굴하고 양성할 필요성을 제기함.
- 향후 가족 친화 지역사회 환경 조성 정책은 관(공공)에 의존하지 않은 자생력을 확보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새로운 관계맺음을 지원하는 정책의 강화

- 새로운 관계맺음과 공존의 가치를 공유, 확산하는 가족문화 조성 정책을 강화해야 함. 개인 및 가족 차원에서 확보되기 어려운 유무형의 자원을 공유하고, 가족 돌봄과 책무를 나누며, 가족과 개인의 교류를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촉발하는 기제가 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해야 함.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HK+ Research Unit on Family Community, CNU